



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불교 종단입니다.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구독문의 02-552-1080

The chongji news

불기 2551년 제90호

부처님 오신날 동축법어



효강 종령

봄빛 푸른 오늘은 불기2551년 부처님 오신날입니다.

이 성스럽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화신으로 오신 것은 모든 중생이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하기를 기원하는 무차

“차유고피유(此有故彼有) 차생고 피생(此生故彼生), 차무고피무(此無故彼無) 차멸고피멸(此滅故彼滅).”
“이것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의지하는 연기 존재들이 이루는 거미줄 인드라망의 우주이므로 우주와 나의 존재는 일체동체인 것입니다.

일체만물은 서로 의지하여 살고 있어서, 하나도 서로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이 깊은 진리는 만물

이쪽을 해치면 저쪽은 따라서 손해를 보고, 저쪽을 도우면 이쪽도 따라서 이익을 받습니다. 남을 해치면 내가 죽고, 남을 도우면 내가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진리입니다. 참으로 내가 행복하고 보람되게 살고 싶거든 남을 도읍시다.

내가 사는 길은 오직 남을 돕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는 미물이라도 자비한 마음으로 도와주면 언젠가는 은혜를 갚기 마련입니다.

동생동사(同生同死), 동고동락(同苦同樂)의 대진리를 하루 빨리 깨달아서 모두가 시기와 질투, 아집과 집착의 굴레를 버리고, 손을 맞잡고 서로 도우며 힘차게 정진합시다. 성도합시다.

연기법 깨달아 동체대비 실천

대비의 원력이었습니다.

나와 남이 따로 없고, 천지와 더불어 우리 모두 하나의 생명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탐욕과 분노가 얼마나 부질없는 망상인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찰나도 멈춤이 없는 인연과 연기의 우주에서 모든 존재들은 일체동체(一切同體)를 이룹니다. 세상의 모든 좋고 나쁜 것들의 인연에 의해 나는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므로 일체동체이며, 서로의 인연에

은 원래부터 한 뿌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기(緣起)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 자비심과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부처님 오신날 병축사



원송 통리원장

산과 들에는 푸른 물결이 출렁이고 꽃향기가 곳곳에서 충만합니다.

우주법계의 푸른 물결들이 이처럼 넘치는 기쁨으로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는 것은 그분의 탄생을 인류역사를 대전환시켰기 때문이며 우리를 생사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불기 2551년을 맞는 부처

님 오신날입니다. 바로 오늘 부처님은 역사적 존재로 탄생하시어 유일한 삶을 사셨지만 법신(法身)은 항상 생멸이 없고 시공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우주법계에 충만해 계십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부처님같이 절대 평등한 불성(佛性)을 지니고 있음을 선언하시고, 올바른 깨달

의 대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룸비니 등산에서 탄생하실 때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시고 하늘과 땅을 가리키시며 “天上天下(천상천하) 唯我獨尊(유아독존)” 이라 외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만이 홀로 높은 주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 대지를 밟고 서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차별과 분별심을 버리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보람되고 행복한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이 평등한 불성(佛性)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생명과 존엄은 어떠한 사상과 제도, 권력에 의해 구속되거나 억압받아서 안 됨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동체 삶의 모범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상의상존(相依相存)해야 하는 공동체의 원리, 배움과 나눔이 있어야 하는 공존(共存)의 법칙을 대중 속에서 시현해 보이신 것입니다.

공동체의 삶은 모든 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하지 말고, 무명(無明)과 이기심(利己心)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부처님 열반과 해탈의 세계로 제도하는 일이며, 불의와 증오로 가득한 원망의 마음을 버리고 자비(慈悲)와 은혜(恩惠)의 마음자리로 바꾸는 일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사부대중들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실천하고, 대립과 갈등의 질곡을 벗어나 해탈과 열반의 길로 인도되시고, 각 가정과 이 사회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불성(佛性) 지닌 주인된 삶

음을 열어 중생을 해탈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축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인도 카필라왕국의 태자의 몸으로 강탄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왕위를 버리고 출가수도 하시어 큰 깨달음을 이루시고 중생들에게 해탈

모두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고, 가정의 주인이며, 사회의 주인이고, 국가의 주인, 나아가 세계의 주인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주인처럼 생활하고, 행동하는 이의 삶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고, 의미없이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과 달리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일평생을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 날을 생명해탈의 날이요, 인간존엄의 대선언을 선포한 역사적인 날이라 합니다.

부처님은 인류가 지향하여야 할

제69회 춘계강공 회향 종단발전위한 다양한 논의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통리원에서 개최된 제69회 춘계 강공회가 원만 회향됐다.

강공회 개강식에서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를 통해 “강공은 종조님이 만드신 특별용어”라며 “종단의 모든 승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사원에서 경험한 교화의 방편과 방안 등을 서로 교환하고, 종단발전 방안을 숙의하는 중요한 모임으로 앞으로도

그 전통과 명맥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령 예하는 또 “말법 시대에 중생을 교화하려면 수행과 법력을 가져야 하며,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과 사상을 바탕으로 한 교상의 확립에서 나온다”고 역설했다.

이번 강공회는 첫날 원의회, 재단 이사회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복지재단, 중앙종의회, 승단총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원의회, 재단이사회

연석회의에서는 과년도 통리원, 전당건설, 유지재단, 법장원 결산 심의를 비롯해 유지재단 이사 선출, 감사선출, 등의 논의가 있었으며 복지재단 회의에선 결산 심의와 함께 임원선출 이사 건, 등의 토의가 열렸다.

이튿날 있던 중앙종의회에선 과년도 통리원, 전당건설, 유지재단, 법장원 결산 심의와 임원선출 건, 유지재단 이사 추천 건, 사회복지재단 임원



선출 건, 동해 중 이사장, 감사 추천 건 등의 안건을 상정했다. 승단총회에선 제9대 중앙종의회 종의원 선출과 종단현안문제 등을 논의했다.

총지종은 이번 강공회 논의의 결과를 통해 새도약을 위한 정책들을 입안하고 종단중흥의 시금석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달의 종조법설

심화즉기화(心和則氣和)요, 심역즉기역(心逆則氣逆)이니라. 심기가 화수하면 기혈이 순행하여 모든 병이 나지 않고, 심기가 불순하면 기혈이 역행하여 백병이 구생이라. 그러므로 마음이 화평한 데 병이 낫고, 마음이 불평한 데 병이 생기는 법이다.



총기36년(불기2551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합니다.

총지도량의 진언세계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종령 효강

통리원장 원송

법장원장 법공 사감원장 지성 교육원장 화령 총무부장 경원 재무부장 시정 사회부장 인선 교정부장 선도원

서울경인 교구장 정법계 대구경북 교구장 지공 충청전라 교구장 밀공정 부산경남교구장 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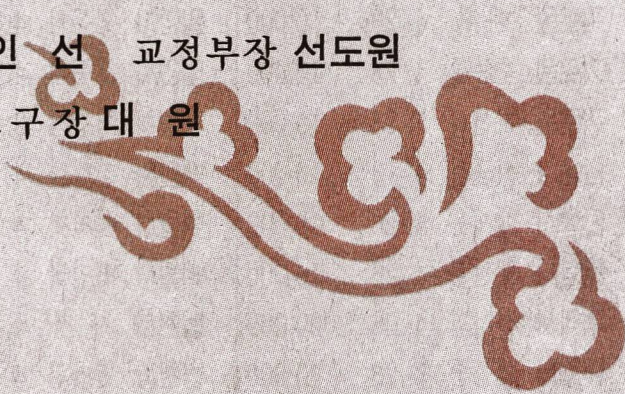
불교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전송 02)552-1082 //www.chongji.or.kr

(반타당색 관해)



사 설

교화활성화 정책을 기대하며

춘계강공회가 지난 4월 18일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었

다. 강공은 경을 강의하고 익힌다는 뜻으로 강의를 통하여 경공부를 한다는 취지였으나 최근에는 종단의 현황을 설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회의위주의 형태로 열리고 있으며, 일년에 봄과 가을로 나누어 두 번씩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춘계강공회는 다른 강공회와 비교하여 전국 스승들이 일체감을 느끼고, 새로운 변화로 교화활성화를 다짐하는 등 여느 때와 달리 고무적인 분위기였다.

특히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타 종교단체들의 다양한 포교방법들을 수용하여 교화활성화와 포교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이 다종교가 혼재하고 있으며 각 종교단체들이 각자의 교세확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있다. 종교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심화되고 있고, 개신교는 신도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교리공부와 다양하고 구체적인 포교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와 문화의 콘텐츠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문화와 종교, 복지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각 종교단체들의 포교방법도 신도들을 위한 적극적인 포교 접근방식으로 욕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신도들이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적, 영적인 배려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종단도 교도들의 욕구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화활성화를 위한 실행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변화의 바람이 이번 춘계강공회를 계기로 확고하게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효강 종령예하와 원승 통리원장은 종단의 발전을 위해 '모든 승직자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수용하고, 다각적인 포교방법을 모색해 교화활성화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사원의 만다라 봉안, 수인사의 극락전 설치, 정각사의 야의 불상봉안, 각 사원의 서원당 환경개선이 거론되었고, 시행안이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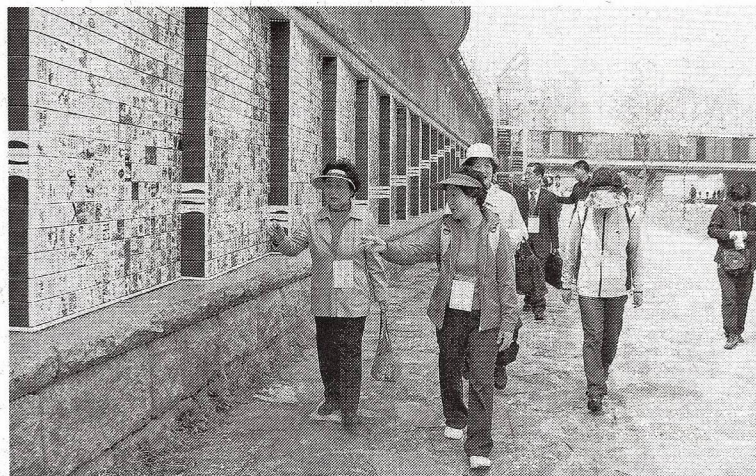
그동안 강공회의 안전과 방안들이 구호에 그칠 뿐 시행 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던 것과 달리 강공후 효강 종령예하와 원승 통리원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춘계강공회의 공약들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안 마련을 위해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효강 종령예하는 '이제는 종단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과거의 고루한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순응해야 하며, 교화활성화를 위해서는 교도와 승단이 한 마음이 되어 적극적인 포교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종단 발전을 위해 단호한 어조로 승단의 격려와 지원을 강조하며 종단발전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종단의 발전은 한 개인의 힘만으로 부족하다. 전 승단과 교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새로운 교도들을 제도하고자 하는 의욕과 자신감, 불퇴전의 용맹진진, 고집과 집착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자비한 마음가짐, 긍정적인 사고로 단점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맑은 내 걸으며 봄 정취 느꼈어요”

자비신행회, 청계천 걷기대회 개최



총지종에서 발행하는 위드 드라마 자비신행회가 지난 달 14일 청계천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했다.

동묘역에서 출발, 청계천 8가를 거쳐 하루 생태공원까지 약 3km 구간에서 진행된 이번 걷기 대회엔 서울경인지역 사원주교

와 임원진, 교도 가족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종단 내에서 종단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계절감과 인근 시설을 잘 활용하는 등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위드 드라마 자비신행회 지도

“불우이웃과 함께 해요”

울산 실보사, 지역 어르신 도시락 전달

총지종 울산 실보사(주교 우인)는 지난 4월 27일 울산시 태화동 주변지역 노인정과 양로원을 방문하여 도시락 300개를 전달하며 어르신들을 위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올 1월부터 '지역 불우이웃과 함께한 실보사'라는 주제로 그동안 실보사 교도들이 동참하여 기획하고 시행한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실보사는 울산의 중심지인 태화동에 위치한 밀법도량으로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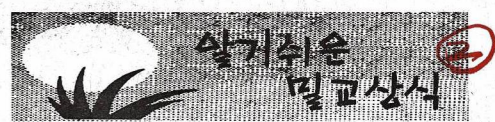
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며, 교도들이 단결된 모습으로 정진하고 수행하는 수행도량으로 그 명성이 대단하다.

실보사 주교 우인정사는 "교도들이 힘을 합쳐 주변의 노인들을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으며, 부처님의 공덕과 자비 실천도량으로 거듭 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보사는 총지종 사회복지재단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여 어렵고 힘든 교도들을 성원했다.

알림방

- ▶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월초불공 기간입니다.
- ▶ 5월 20일 연등축제가 서울 동대문운동장과 종로에서 열립니다.
- ▶ 부산 불족연대법회 및 연등축제가 5월 19일 오후 5시 사직실 내체육관에서 동행됩니다.
- ▶ 5월 24일은 총기 36년(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입니다.
- ▶ 5월 28일부터 하반기 49일 진화국가 불공을 동행합니다.



비로자나불 - 밀교의 교주

밀교에서는 비로자나부처님을 근본교주로 모시고 있다. 비로자나(毘盧遮那)는 범어의 바이로차나(Vairocana)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서 변일체처(遍一切處)·광명변조(光明遍照) 등으로도 번역된다. 즉, 비로자나부처님은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빠짐없이 비추는 뜻이다.

비로자나라는 말은 원래 밝게 빛나는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불교에 이 말이 도입되어 석가모니불의 본신(本身)을 뜻하게 되었다. 즉, 최고의 진리를 깨치고 진리와 하나가 된 석가모니 부처님을 밝은 태양에 비유했던 것이다. 나중에 이러한 상징성이 더욱 확대되어 우주법계에 상주하는 이치의 부처님[이불(理佛)]인 법신불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비로자나성불신변가사경(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일경(大日經)》에 의하면 비로자나라는 말은 광명변조로 의역이 되는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덕이 태양과 같아 그 광명이 우주 법계에 충만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밀교에서는 특히 비로자나부처님을 대일여래(大日如來)라고 하는데 이 때의 대일(大日)이라는 말도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생겨났다. 즉,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것이 태양이므로 법신불의 덕을 찬탄하여 태양으로 상징하고 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중국에 밀교를 전한 선무의상장(善無畏 三藏)도 《대일경》을 해석한 《대일경소(大日經疏)》에서 말하기를, 이 부처님은 태양과 같으므로 비로자나 즉, '대일(大日)'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불덕(佛德)을 제암변명(除闇遍明)의 덕, 능성중무(能成衆務)의 덕, 광무생멸(光無生滅)의 덕, 세 가지로 특징 지워 설명했다.

먼저 비로자나부처님의 덕이 제암변명이라고 한 것은 문자 그대로 어둠을 걷어내고 밝음을 편다는 뜻인데 우리가 보는 일상의 태양은 그늘진

이렇게 하는 덕이다. 마치 태양빛이 삼라만상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덕은 온 우주만물이 성장발육하고 유지발전되도록 한다.

광무생멸의 덕이란 불생불멸의 덕을 말한다. 비로자나부처님은 모든 법의 본체이며 생겨나고 말하는 것이 없는 본불생(本不生)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여여(如如)하게 있을 따름이다. 다시 말하면 비로자나부처님은 일체의 생명의 근원인 동시에 일체는 비로자나부처님에 의하여 비로소 생명이 있다. 그것을 가리켜 광무생멸의 덕이라는 것이다.



▶태상계 대일여래

비로자나 - 밝게 빛나는 태양 상징 모든 법의 본체, 우주, 진리

곳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불지(佛智)의 광명은 때와 장소,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비추는 데 그 차이가 있다.

그리고 능성중무의 덕이란 모든 일을

이렇게 보면 비로자나부처님이 바로 우주 진리이며 일체인 것이다. 따라서 모든 불, 보살도 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분화신(分化身)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여러 불·보살·명왕·천 등이 곧 이러한 비로자나불의 변화신인 것이다. 《대일경소》에 의하면 비로자나불을 무상법신(無相法身)과 실상지신(實相智身)의 둘로 나누고 무상법신을 근본적인 법신의 세계로 보고 실상지신을 이러한 법신의 세계가 불·보살·명왕·천 등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설법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근기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실상지신의 모습을 통하여 비로자나불의 깨달음[자내증(自內證)]의 세계를 볼 수 있으며, 또한 실상지신을 통하여 대일여래의 가지(加持)를 얻음으로써 성불에 이를 수 있다.

한편, 비로자나불의 무상법신이라는 것은 실은 무명이 멸한 우리의 마음의 근본 모습을 상징한 것이다. 중생의 마음의 실상을 아는 것이 곧 부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며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한 우주관도 결국은 우리들 마음의 다양한 전개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밀교의 세계에는 오직 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만이 계시며 우리가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삼고 여러 불보살의 가지로써 비로자나 부처님의 심오한 세계를 증득하고자 힘겨운 수행을 하고 있는 것도 실은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상징되는 우리 마음의 실상을 깨달아 성불에 이르고자 하는 방편의 하나인 것이다.

- 화령(중앙교육원 원장)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2007년 3월 28일 부터 4월 27일 까지

개천사 무명씨 4.13 5,000	만보사 지성 4.2 10,000	법천사 임선순 4.2 10,000	실보사 신정희 4.27 1,321,000	정각사 조현필 4.27 5,000
개천사 무명씨 4.13 5,000	만보사 승효제 4.2 10,000	법천사 김정숙 4.4 5,000	실지사 정경자 3.28 5,000	정심사 박옥란 4.9 20,000
건화사 이 은 4.9 20,000	만보사 민순분 4.4 20,000	벽룡사 오미순 3.29 5,000	실지사 박병성 3.28 5,000	정심사 오윤보 4.11 5,000
관성사 황성녀 3.28 10,000	만보사 배정임 4.13 10,000	벽룡사 원 당 4.10 10,000	실지사 정연수 3.30 5,000	총지사 이인성 4.9 30,000
관성사 이위재 3.29 20,000	만보사 지성 4.27 10,000	벽룡사 표심해 4.10 10,000	실지사 조원호 4.4 3,000	통리원 지 정 4.23 20,000
관성사 해 정 4.27 10,000	만보사 승효제 4.27 10,000	벽룡사 이희숙 4.18 10,000	실지사 이화수 4.12 7,000	해정사 지성인 4.16 20,000
관성사 정법계 4.27 10,000	밀인사 정정희 3.28 5,000	삼밀사 원 송 4.5 10,000	실지사 록 경 4.25 10,000	해정사 정은선 4.16 20,000
기로원 상지화 4.23 10,000	밀인사 무명씨 3.28 10,000	삼밀사 인법계 4.5 10,000	실지사 법수연 4.25 10,000	해정사 해보심 4.20 10,000
기로원 불멸심 4.23 10,000	밀인사 이재호 4.4 5,000	삼밀사 김주희 4.26 20,000	실지사 손우성 4.25 10,000	회음사 김보미 4.3 6,000
기로원 법장화 4.23 10,000	밀인사 신대식 4.12 5,000	선림사 김춘자 4.12 10,000	실지사 정경자 4.26 5,000	흥국사 강한빛 3.30 20,000
기로원 대자행 4.23 10,000	밀인사 이해성 4.12 5,000	선림사 삼지장 4.12 10,000	실지사 박병성 4.26 5,000	흥국사 밀공정 4.3 30,000
기로원 대 관 4.23 10,000	밀인사 신동희 4.12 5,000	선림사 정복지 4.12 10,000	운천사 박보경 4.24 20,000	흥국사 강문석 4.3 20,000
기로원 수중원 4.23 10,000	밀인사 신동의 4.12 5,000	선림사 대 덕 4.20 10,000	정각사 박달연 3.30 5,000	흥국사 강한빛 4.27 20,000
기로원 차선화 4.23 10,000	백월사 이갑진 3.30 10,000	선림사 이순복 4.27 10,000	정각사 황영숙 4.2 10,000	이현우 3.28 10,000
단음사 이규성 4.13 10,000	백월사 김경식 4.11 10,000	성화사 우담바라 4.17 50,000	정각사 편순개 4.13 5,000	최순전 3.29 164,000
단향사 이재은 4.26 10,000	백월사 박인철 4.20 5,000	성화사 정지혁 4.19 10,000	정각사 노점호 4.20 10,000	
단향사 행원심 4.26 10,000	백월사 박인국 4.20 5,000	성화사 김경민 4.19 10,000	정각사 구정희 4.17 20,000	
덕화사 신정희 4.26 1,000,000	법천사 시 정 4.23 10,000	수인사 김봉기 3.29 10,000	정각사 이란이 4.18 10,000	
만보사 최옥순 3.28 10,000	법천사 원만원 4.23 10,000	실보사 이순옥 4.12 10,000	정각사 박수빈 4.19 1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리은행: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 위 금액은 전액 불우교도 가정 돕기에 사용됩니다.

풍경소리

여기에 의지(依支)할 뿐이다



옛날 전염병이 든 사람이 있었는데 살이 썩어 문드러져 심한 악취가 나, 그 냄새를 맡은 사람은 코를 싸 질 정도였습니

다. 성품이 인자한 스님이 있어 그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면서 항상 보통 사람 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 습니다.

때때로 같은 음식에 음식을 먹고 옷을 기워주고 빨래도 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겨 "그 사람을 평범하게 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 입니까?"

하고 묻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항기와 악취는 마음으로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 이다.

내 어제 마음을 돌로 나누겠는가? 여기에 의지할 뿐이다."

- 치문승행록(轡門崇行錄) 중에서

일을 하는 법



일을 하는데 있어 차라리 여유 있게 하느라 범하는 실수는 있을지언정 다급한데서 실수해서는 안되며, 간략한데서 실수할지언정 자세한데서 실수해서는 안 된다. 다급하면 고칠 수 없고, 자세한데서 실수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중도(中道)를 지키면서 여유 있게 일을 대하여야 일을 하는 법도에 맞는다 하겠다.

- 영원 유정 스님 / ? ~ 1117

나 만이라도

"작은 먼지 티 팔이 온 우주를 머금었고, 찰나가 곧 영겁이다."

의상 스님의 말 씀입니다.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 고,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본 다.

손바닥 안에 무 한을 거머쥐고 순 간 속에서 영원을 붙잡는다."

어느 시인의 노 래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 리 모두가 제각기 하나의 소우주를 일깨워 줍니 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잊고 스스로를 가버려 여겨 '나 하나 썩어야' 하면서 합부로 행동하기 일쑤입니다.

이제는 '나 만이라도'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할 일입니다.

- 박경준 / 동국대 교수



한국불교미술 ⑩

사원의 일상용품 - 불교공예 ②

II. 공양구(供養具)

1. 사리기(舍利器)



사리를 탑 속에 봉안할 때 담은 용기를 일러 사리기라 한다. 이 사리기는 직접 사리를 담은 그릇인 사리용기와 이 용기를 다시 감싸고 장엄하기 위한 외함으로 이루어진다.

사리기는 유리, 수정, 황금 같은 값비싼 재료를 사용하여 만드는데 그 형태는 대 개 병이나 항아리 또는 원통형이다. 이 사리용기를 다시 은, 동, 철, 돌, 흙으로 만든 용기로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겹 때로는 여섯 겹씩 겹쳐서 감싼다.

2. 정병(淨瓶)

물을 담은 그릇으로 물 가운데서도 가장 깨끗한 물, 감로수를 담은 병이라 하여 정병(淨瓶)이라 하기도 한다. 감로수는 중생들의 고통이나 목마름을 없애주는 물이다. 관음보살이나 미륵보살, 제석천 등도 이런 병을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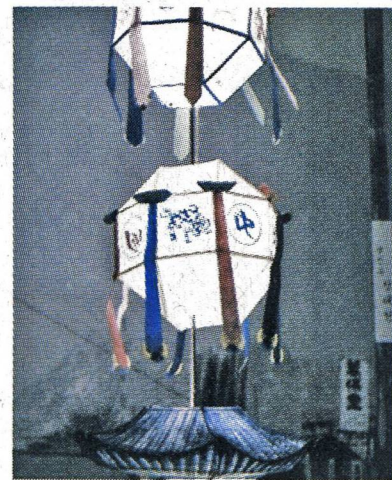
3. 향로(香爐)

향은 자신의 몸을 태워 향기를 내고, 번뇌와 망상을 소멸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불교에서는 향 공양을 중요하게 생각한 다.

4. 다기(茶器)

차는 중국에서 크게 유행하여 우리나라 에 들어와 통일신라 때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여 선종의 발달과 함께 9세기부터 필 수품이 되었다.

5. 등(燈)



등은 불을 담은 용기이며 불은 어둠을 밝혀 준다는 의미로 중요하다. 따라서 불 교에서는 중생들의 어리석은 마음에 등불 을 밝혀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준다는 뜻 에서 이것을 '공명등'이라 부르며 귀중하 게 여긴다.

보통 연등과 석등을 많이 떠올리지만, 재료에 따라 종이등(紙燈), 배등(布燈), 나무등(木燈), 구리등(銅燈), 돌등(石燈), 자기등(磁器燈), 옥등(玉燈) 등 여러 가 지가 있다.

III. 장엄구(莊嚴具)

장엄구는 법당을 장엄하게 꾸며 주는 여러 가지 불구들을 이르는 말로, 불단이 나 닷집(천개)같은 내부를 꾸미는 것에서 부터 지붕의 기와, 그리고 깃발인 당번에 이르기까지의 사원을 부처님 세계답게 꾸 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1. 불단(佛壇)

불단은 부처님을 모시는 단으로 이 위 에 불상을 모시고 예불과 의식에 필요한 법구와 향로, 촛대, 화병 등을 올려놓는 다.

불단은 부처님 세계를 상징한다 하여 수미단이라고도 하는데 이 때, 각 면에 여러 가지 꽃, 새, 짐승, 당초, 보상화 무늬들을 부조하고 단청을 하여 자비와 기

쁨이 가득한 곳 우주 삼라만상이 조화를 이루는 곳을 표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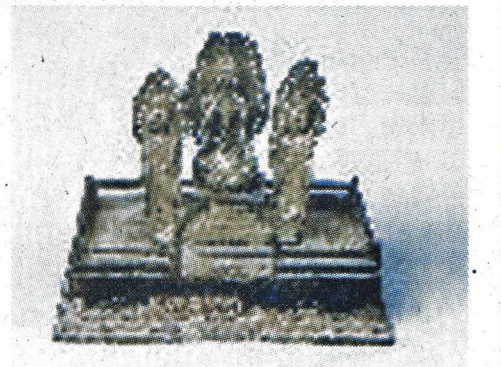
2. 천개(天蓋)

부처님을 보호하고 장식하기 위하여 본 존불의 머리 위를 장엄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것은 수미단의 상부를 꾸미는 것으로 화려한 보궁(寶宮)의 형태를 하고 있다.

4각, 6각, 8각, 원형 등 여러 가지가 있 는데, 각 모서리에 번을 내려뜨리고 구슬 을 달아 장막이나 보막을 친다.

또한 용과 구름을 화려하게 조각하고 갖가지 무늬로 채색하여 하늘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다른 말로 닷집이라 부르기도 한다.

3. 불감(佛龕)



집(堂)의 축소형으로 안에 불상을 봉안 하기 위한 것인데, 작은 것은 이동하기 쉽도록 만든 동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집모양으로 되는 것도 있다. 재료로는 동 이나 나무가 많이 쓰였으며 조선시대에는 나무로 된 불감이 많았다.

4. 법상(法床)

고좌(高座)라고도 하는 데, 법사나 선 사들이 앉아서 설법하는 일종의 대좌이 다. 4각형의 높은 단 모양으로 각 면은 여러가지 장식으로 꾸며진다.

5. 번(幡)

번은 부처와 보살의 위덕과 무량한 공 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종의 깃발로 여 러 가지 형태가 있다.

당번(幢幡)은 긴 장대에 매단 깃발을 말하며, 옥번(玉幡)은 옥으로 꾸민 것이 고, 관정 때 쓰는 관정번(灌頂幡) 등도 있는데 갖가지 수를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배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한 다.

이달의 명상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결같은데 이 가르침을 듣는 중생들은 어째서 한결같이 번뇌를 끊을 수 없습니까?

진수보살이 대답했 다.

"중생들 가운데는 빨리 해탈하는 사람 도 있지만 해탈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 니다. 만약 어리석음 을 없애어 해탈하려 고 한다면 굳은 결심 으로 용맹 정진해야

합니다. 나무가 젖어 있으면 약한 불은 꺼지 고 말듯이 가르침을 들었어도 게으른 자는 그

와 같습니다. 불을 지 필 때에 태우다 말다 하면 마침내는 꺼지 고 말 듯이 게으른 자도 그와 같습니다. 눈을 감고서는 달빛 을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듯이 게으른 자 가 법을 구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서울·경인교구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총지중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에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자비를 실천할 단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모집대상 : 모든 불자
◆ 모집시기 : 수시
◆ 연습일시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0분
◆ 연습장소 : 총지사
◆ 연락처 : 노진숙 단장
02)552-1080~3(대)



원정대성사와 함께 하는

VISUAL
~전수경면 제15화~

글:그림/정수일

분위기도 좋은데 자아~ 계속 진도 나가볼까요?

좋아! 그럼 내가 결정한다. 2천 원으로 복권을 사는 거야!

저...저런! 복권을...

가자! 복권 사러.

어떤 복권을 살 건가요?

화화...

내...내 돈! 복권 사라고 준 건 아닌데...

자! 천만원만 걸러라.

잠깐!

잘 터지는 복권 4장 주세요.

크익!

부처님께 기도 올리고 하자.

당첨보살마하살! 당첨보살마하살! 부처님, 만약 제가 천만원만 당첨된다면...

각자님들! 그건 참된 기도가 아니어요! 부처님과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였지요!!!

아이고! 두 장 다 팜이야. 부처님 나빠!!!

아니 왜 괜히 부처님을 원망 하세요? 언제 부처님께서 약속을 했나요?

그러니까 참된 부처님 말씀이나 계속 공부하자고요. 진실어중선밀어/ 무위실내기비심/ 숙령만죽제회구/ 영사멸제제죄업/ 하하하!

진실어중선밀어 (眞實語中宜密語)란 진실한 말 가운데 비밀스러운 말씀을 베푼다~ 라는 내용인데 밀어는 진언, 즉 다라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밀어"는 비밀스런 암호가 아닌 아주 중요하고 값지며 귀한 큰 뜻이라는 말씀...!

각자님!!!

정수일홈피-><http://home.paran.com/octagonp>

총기동의보감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예방

- 약물요법



김장규 원장
(서초실버의원)

최근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과 위험요인이 많이 밝혀졌지만, 고령이나 여성과 같은 인구의학적 위험요인이나 유전적인 요인은 예방이 어려운 측면이 많다.

또한 치매예방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인 정신활동과 신체활동을 활발히 유지하고, 주변 친지와 자주 만나서 정서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은 너무 일반적인 측면이 있다.

이 외에 약물로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가운데 이론의 여지가 적고 비교적 확립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에스트로겐 요법(estrogen therapy)
실험동물에서 에스트로겐(estrogen)이 알츠하이머 병의 신경퇴행성 변화와 비슷한 중추신경계의 신경원을 재생시키거나 유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구나 이 홀몬의 변화가 신경원의 구조와 학습, 기억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에스트로겐(estrogen)의 결핍이 선택적으로 에스트로겐(estrogen)에 반응하는 신경들의 취약성을 증가시키고 그 외의 다른 요소와 함께 신경원의 상실을 가져와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킨다는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에스트로겐(estrogen)은 혈관성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질병에 걸린 혈관의 혈류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론에 따라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에스트로겐 보충요법(estrogen replacement therapy)이 제시되고 있고 최근 여성건강증진연구(Women's Health Initiative-Memory Study)는 처음으로 홀몬대치요법이 치매의 발병과 경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무작위의 장기간에 걸친 임상연구를 시작하였다.

2) 항 혈소판제(antiinflammatory agent)
다수의 문헌들이 알츠하이머병이 소염제의 복용으로 예방되거나 약화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소견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기전에 싸이토킨(cytokine)과 급성기의 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알츠하이머병에서 아밀로이드가 침착하면서 주변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며 나아가 뇌혈관주변에도 염증을 일으켜 원활한 혈류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용은 당지질 호르몬(gluccorticoid)에 의해 억제되기 때문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가 스테로이드성 소염제보다 알츠하이머병에 예방효과가 강하다고 한다.

3) 프리 래디칼(free radical)
최근 노화의 원인으로 프리래디칼(free radical)이 대두되고 있듯이 프리 래디칼(free radical)은 알츠하이머병의 중요한 병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옥시젠 프리래디칼(oxygen free radical)은 아밀로이드의 침착에 관계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항산화제의 예방 및 치료 효과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중이다.

죽비소리

수행자

다 해진 누더기를 철치고
여워어 앙상하게 힘줄이 드러나 있고
홀로 숲 속에서 명상에 깊이 잠겨 있는 이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집착이 없는 사람
그를 나는 진정한 수행자라 부른다.

모든 속박을 끊어 버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집착을 초월한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노끈과 밧줄과 쇠사슬을
말안장과 함께 끊어 버리고
장애물을 없애 깨달은 이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모욕과 학대와 투옥에도
성내지 않고 천덕 배는 사람
인내력이라는 강한 근대를 가진 이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성내지 않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고
도덕적 규율을 지키고 맑고 순수하며
이번 생의 몸이 마지막 몸인 사람
그를 나는 수행자라 부른다.

법구경, 중에서

서 초 실 버 의 원

1995년 서울에서 최초로 개원한 치매/중풍 전문요양병원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진과 간호진이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기술, 따뜻한 정성으로 어르신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김장규 서초실버의원 원장

전문진료과목

- 치매
- 뇌졸중
- 노인성 우울증

진료 시간

평일(토) : 09:00~18:00
일요일 & 공휴일 : 예약진료

응급 / 입원환자 제외

주요경력

- 1991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1996년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취득
- 경기도 연천군 보건의로원 정신과과장
- 2000년 전임의과정 수료(서울대학교병원, 노인정신의학 전공)
- 2001년 석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주 멜버른대학 연수 (IMHLP:International Mental Health Leadership Program)
- 2002년 박사학위과정 취득(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정신병원 및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정신과 과장
- 전국 정신요양시설 평가위원회.위원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 www.elderlynp.co.kr

전화상담 : 02-575-1850 Fax : 02-575-8275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2-3번지



지상설법

복(福)은 어떻게 받고 지어야 하는가 (上)



(정각사 주교)

태의 믿음과 바람(소망所望)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 경전의 말씀에도 여러 곳에 복에 대한 언급이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불자로서 복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판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본인이 평소 생각해 왔던 복에 대한 견해를 한 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에 대하여 말은 쉽게 들하

그래서 예로부터 "복 받기는 다 좋아 하면서 복 짓는 이는 드물고 죄보(罪報)받기는 싫어 하면서도 죄를 짓는 이는 너무 많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福-몰라서 못짓고 알면서도 못짓고, 罪-몰라서 짓고 알면서도 짓고

1. 복의 쓰임

복이란 형상이 없으면서도 그 작용과 쓰임새는 무궁무진하여 종류도 많거니와 어디에

2. 복의 종류

복의 종류를 살펴보면 먼저 나를 중심으로 부모복, 동기복, 처복(남편복), 지식복, 재물(돈)복, 관복(官福-벼슬, 지위), 문복(文福-문장, 글재주, 명문대학), 인복(人福-도움을 주는 사람)과 소위 세간에서 말하는 오복(五福)-①수복(壽福-오래 사는 것) ②부귀(富貴-재물과 명예가 넉넉한 것) ③강녕(康寧-건강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듯, 길거리에서 돈지갑 줍듯, 복권이 당첨되듯, 재수가 좋아 생기기거나, 부처님이나 하느님이 떡 나눠 주시듯 나눠 주어 받는 것 쯤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복이란 결코 우연한 재수거나,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작자수(自作自受) 자업자득(自業自得) 하셨으니-장드시 내가 지어 내가 받는 것이지 결코 빌(구걸求乞)거나 빌려거나(차용借用) 훔치거나 빼아사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기 복은 자기가 지어 자기만이 받아 누리는 것으로, 남이 훔쳐가거나 빼앗아 갈 수 없고, 내가 쓰지 않는 한 결코 줄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사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다 전생에 자기가 지은 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집(빈 부귀천)에 태어나든지 자기 복으로 살게 됩니다. [예컨대 미혼모의 소생이나 빈천한 가정에 태어났다 할 지라도 부귀한 가정에 입양되거나 우연한 인연(善緣)의 도움으로 일생을 부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3. 복은 어떻게 받는가

복의 근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복이 마치

(다음호에 계속)

자작자수(自作自受) 자업자득(自業自得)

법공

서언

한 때 교계 일각에서 "기복은 불교가 아니다"라는 명제를 놓고 찬반 양론이 뜨겁게 달아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조상대대로 복(福)에 대하여 다양한 형

는데, 자세히 보면 복이 좋은 것인줄은 알면서도 막상 그 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마다 복 받기를 바라고 복 많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복이 어떤 것이며 어디서 오며, 왜 있고 없는지, 다복(多福)하고 박복(薄福)한 그 근원에 대하여는 무지할 정도로 잘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 쓰이지 않는데가 없고 무소불용(無所不用) 그 이로움이 실로 말로 다하기가 어렵다 하였습니다.

(예로-병법에 용기있고 힘센 장수라도 전략에 능한 지혜있는 장수만 못하고 지략이 뛰어난 덕 높은 장수만은 못하고 비록 덕망이 있는(有德) 장수라 할 지라도 복까지 겸한 장수만 못하다 함.)

하게 사는 것) ④유호덕(攸好德-복덕 짓기를 좋아함) ⑤고종명(考終命-명대로 잘 살다가 편히 죽는 것) 등 실로 그 종류도 다양하다 하였습니다.

진리의 여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던 기간은 팔십 년에 불과하지만 그가 끼친 영향은 세월이 지날수록 빛을 더하고 있다.

그는 불교라는 한 종교의 창시자이기에 앞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몸소 체험하고 그 자각을 선언한 최초의 인간이다. 생명과 존재의 실상을 깨닫고 지혜와 자비의 길을 열어 보인 구도자였다.

그는 신비의 장막에 가린 신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 안에 살았던 인간이었다.

그가 일찍이 이 지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살았다는 사실은 우리를 모든 인간의 보람이 아닐 수 없다.

히말라야 남쪽 기슭에 사카족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의 네팔 타라이 지방에 카필라라는 조그마한 왕국을 이루고 있었는데, 카필라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농업국이었다. 수도다나왕은 어진 정치를 베풀어 백성들이 태평한 세월을 즐길 수 있었지만, 이웃에 코살라와 같은 큰 나라가 있어 침해를 받지 않을까 두려웠고, 왕권을 이을 왕자가 없는 것이 걱정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야 왕비는 기이한 꿈을 꾸었다. 여섯 개의 이를 가진 눈이 부시도록 흰 코끼리가 왕비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이었다.

이때부터 왕비에게는 태기가 있었다. 그 태몽은 아들을 낳게 될 꿈이라 하여 사람들은 훌륭한 왕자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였다. 산달이 가까워지자 마야왕비는 그 나라의 풍습에 따라 해산을 하기 위해 친정인 폴리성으로 길을 떠났다. 늦은 봄 화창한 날씨였다. 왕비 일행은 카필라와 폴리의 경계에 이르렀다.

저 멀리 히말라야의 봉우리들이 흰 눈을 이고 우뚝우뚝 장엄하게 솟아 있는 모습이 보였고, 가까이에는 평화로운 툼비니 동산이 있었다.

동산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다투어 피었고, 뭇새들은 왕비 일행을 축복하는 듯 지저귀며 날았다. 툼비니 동산의 아

자신의 목숨을 맞바꾼 셈이다. 세상에 태어난 지 이레밖에 안 된 어린 싯다르타 앞에 생과 사에 대한 문제가 주어졌다. 태자의 양육은 왕비의 동생인 마하파자파티가 맡게 되었다. 이모가 태자의 새어머니로 들어온 것이다. 이것은 그때 카필라의 풍습이었다. 왕은 이름난 점성가를 불러 태

보도록 허락하였다.

백 살도 훨씬 넘어 백발이 성성한 선인은 태자를 팔에 안고 그 얼굴을 이모저모로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곁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양을 지켜보았다. 한참 동안 말없이 태자의 얼굴만을 들여다보던 아시타 선인이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왕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왕은 참다 못해 선인에게 물었다.

"태자를 본 사람마다 크게 기뻐하며 아낀데, 선인은 왜 말 한마디 없이 울기만 하시요? 어디 그 까닭을 속 시원히 말해 보시오." 그제서야 선인은 입을 열었다. "대왕님, 염려하실 일은 아닙니다. 제가 슬퍼하는 것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아 부처님의 출현을 못 보게 된 것이 한스러워 그렇습니다. 태자는 장차 모든 중생을 구제할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도 늙었습니다. 태자가 도를 이루어 부처님이 되실 그때까지 살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 슬퍼서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데리고 온 어린 제자에게 당부했다. "네가 커서 부처님이 출현하셨다는 소문을 듣거든 지체 말고 찾아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라." 싯다르타 태자가 전문성왕보다 훨씬 뛰어난 상을 가졌다는 아시타 선인의 말을 듣고 왕과 신하들은 모두 기뻐했다.

그러나 왕위를 이어받아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출가하여 부처님이 되리라는 말에는 어쩔지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웃나라인 코살라의 침략을 늘 두려워하던 나머지 카필라에 사는 사카족들은 이상적인 전문성왕이 출현하여 코살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려 줄 것을 고대했었다. 그러나 이런 때 태어난 왕자가 나라를 다스릴 인물이 아니고, 출가하여 종교적인 성자가 되리라는 예언이었다.

(불전)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님의 탄생



자의 장래를 알아보고 싶었다.

태자의 얼굴을 보고 난 사람마다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태자는 뛰어난 위인의 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왕위에 오르려면 무릎을 찌르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전문성왕이 될 것이고, 출가하여 수행하면 반드시 부처님이 되어 모든 중생을 구제해 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과 신하들은 한결같이 기뻐했다. 어느 날 아시타라는 선인이 카필라성으로 찾아왔다. 그는 히말라야 깊숙한 곳에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 수도에만 전념하고 있었는데, 천신들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했다.' 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카필라의 왕궁에 태자가 태어난 것을 천안으로 알게 된 선인은 태자의 얼굴을 보려고 왕궁을 찾아온 것이다. 덕망이 높은 아시타 선인이 찾아온 것을 기뻐한 왕은 곧 태자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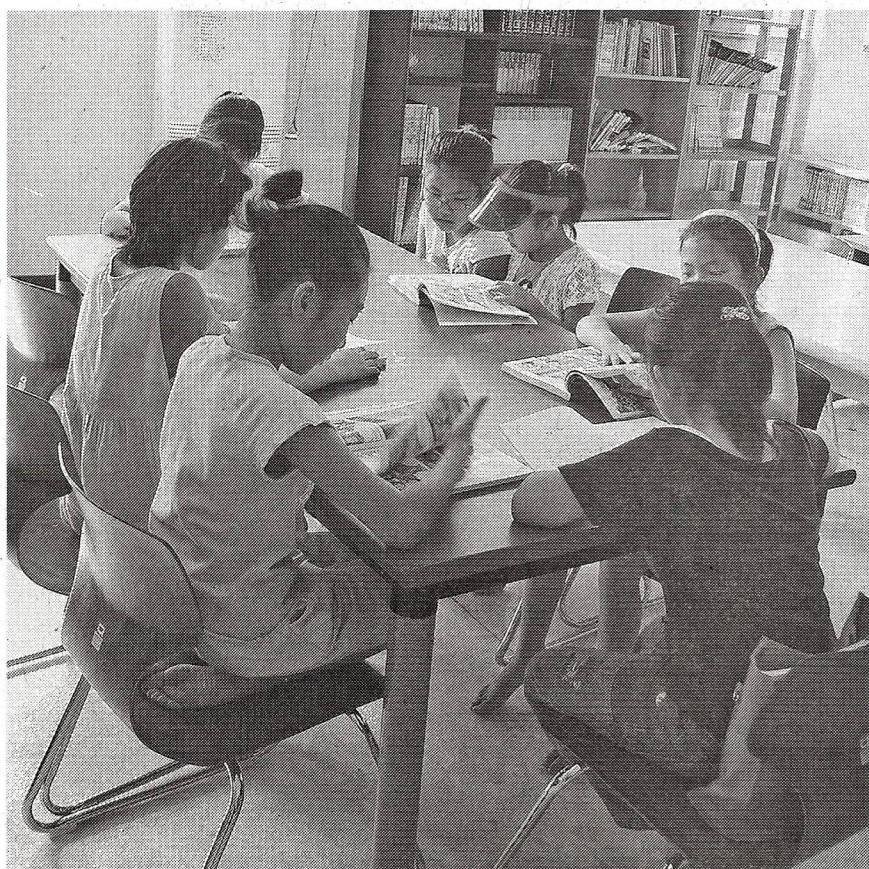
틀다움에 도취된 일행은 그 곳에서 잠시 쉬어 가기로 했다. 마침 가까운 곳에 무우수 꽃이 활짝 피어 아름다운 향기를 뿜고 있었다. 왕비는 아름다운 꽃가지를 만지려고 오른손을 뻗었다.

그 순간 갑자기 산기를 느꼈다. 일행은 곧 나무 아래에 휘장을 쳐 산실을 마련했다. 이때 태어난 왕자가 뒷날 임금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 수행하여 부처가 된 후 무수한 중생을 교화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지금으로부터 이천오백여 년 전의 일이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뜻에서 왕자의 이름을 (싯다르타) 라고 지었다. 그러나 이때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쳐 왔다. 왕자를 낳은 지 이레만에 마야 왕비는 건강이 나빠 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한 사람의 위대한 성자를 낳은 어머니는 그 성자의 삶과

총지중 정각사 바라밀 공부방

바라밀 공부방은 불우한 아동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교육시키는 것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설립목적

바라밀 공부방 활동은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개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현대 교육의 동향을 수용하고 인지적 영역 위주인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교육구조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핵가족화로 인해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가정을 둘러싼 환경과 가족제도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용대상

저소득층의 맞벌이 부부의 아동, 결손가정, 생활보호대상자 아동

프로그램

- 2시~3시 : 과제 및 학습
- 3시~4시 : 태권도
- 4시~5시 : 책고르기 및 독서, 감상문쓰기
- 5시~6시 : 영어, 한문, 컴퓨터, 수학, 미술

※ 바라밀 공부방 봉사자 모집

바라밀 아동들의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를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1회~2회 1시간정도 봉사해 주실 뜻있는 분을 기다립니다.

연락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 051-552-0705

불교설화 <10>

종이장수의 깨달음

조선조 중엽. 지금의 해남 대흥사 산내 암자인 진불암에는 70여 명의 스님들이 참선 정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조실 스님께서 동안거 결재법어를 하고 있는데 마침 종이 장수가 종이를 팔려고 절에 왔다.

대중 스님들이 모두 법당에서 법문을 듣고 있었으므로 종이장수 최씨는 누구한테도 말을 건넬 수 없었다.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해서 최씨는 법당 안으로 들어갔다. 맨 뒤쪽에 앉아 법문을 다 들은 최씨는 그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거룩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대중 스님들의 경건한 모습이며 법당 안의 장엄한 분위기가 최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도 출가하여 스님이 될 수 있으면 오죽 좋을까.』
내심 행각에 잠겼던 최씨는 결심을 한 듯 법회가 끝나자 용기를 내어 조실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 저는 떠돌이다니며 종이를 파는 최창호라 하옵니다. 오늘 이곳에 들렀다가 스님의 법문을 듣고 불현듯 저도 입산수도하고픈 생각이 들어 스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조실 스님은 최씨를 바라만 볼 뿐 말이 없었다.

『그러면 그렇기, 종이 장수주제에 종이나 팔면서 살 것이지 스님은 무슨 스님. 불쑥 찾아든 내가 잘못이지.』

가슴을 조이며 조실 스님의 답을 기다리던 최씨는 마음을 고쳐먹고 일어섰다.

『게 앉거라. 간밤 꿈에 부처님께서 큰 발우 하나를 내게 주셨는데 자네가 오려고 그랬구나. 지금은 비록 종이 장수지만 자네는 전생부터 불연이 지중하니 열심히 공부해서 큰 도를 이루도록 해라.』

최씨를 범기라고 생각한 조실 스님은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아 주었다.

최행자는 그날부터 물을 길고 나무를 하는 등 후원 일을 거들면서 열불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는 후원 일과는 달리 염불은 통 외우지를 못했다.

외우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외워도 그때뿐이었다. 대중들은 그를 「바보」라고 수군대며 놀려댔다. 최행자는 꼭 잡고 노력에 노력을 해 봤으나 허사였다. 입산한 지 반년이 지났으나 그는 천수경도 못 외웠고, 수계도 못 받았다.

그는 자신의 우둔함을 탓하면서 그만 하산하기로 결심하고 조실 스님께 인사드리려고 찾아갔다.

『스님, 저는 아무래도 절집과 인연이 없나 봅니다. 반년이 지나도록 염불 한 줄 외우지를 못하니 다시 마을로 내려가 종이 장사나 하겠습니다.』

최행자의 심각한 이야기를 다 들은 조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다.

『너무 심려치 말고 공부를 계속하거라. 옛날 부처님 당시에도 너 같은 수행자가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하여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조실 스님은 옛날 인도에서 부처님을 찾아가 수행하던 「판타카」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최행자를 위로했다.

형과 함께 출가한 판타카는 아무리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셔도 기억하질 못했다. 마침내 그는 대중 스님들로부터 바보라고 놀림을 받게 됐다. 판타카는 울면서 부처님 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판타카야, 내 말을 기억하거나 외우는 일은 그렇게 소중한 일이 못된다. 오늘부터 너는 절 뜰을 말끔히 쓸고 대중 스님들이 탁발에서 돌아오면 발을 깨끗이 닦아 주거라. 이처럼 매일 쓸고 닦으면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니라.』

부처님은 판타카에게 「쓸고 닦으라」고 일러주었다. 판타카는 그날부터 정사의 뜰을 쓸고 스님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 판타카가 있고 있으면 대중 스님들은 대야에 물을 떠 가지고 와서 거만스럽고 비양겨리는 말투로 「쓸고 닦으라」면서 더러운 발을 내밀었다. 그렇게 여러해가 지난 어느 날 아침, 판타카는 마당을 쓸던 빗자루를 땅바닥에 확 내던지면서 크게 소리쳤다.

『알았다, 알았어.』
그는 뭇듯이 기뻐하며 단숨에 부처님 옆에 나아갔다.

『부처님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뭘 알았단 말이나?』

『부처님께서 제게 쓸고 닦으라신 말씀은 매일같이 저의 업장을 쓸고 마음을 닦으라는 뜻이었지요.』

『오! 판타카야, 참으로 잘하구나.』

부처님은 그 길로 큰 북을 울리셨다.

대중이 한자리에 모이자 부처님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판타카는 깨달았다. 판타카는 깨달았다.』

조실 스님의 이야기를 다 들은 최행자는 「판타카」와 같은 수행인이 되기로 마음을 다졌다. 그는 후원 일을 도맡아 하면서 외우지는 못할망정 《천수경》을 외고 또 외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조실 스님이 막 잠 자리에 들려는데 밖에서 환한 방광이 일고 있었다.

조실 스님은 감격스러웠다.

최행자는 끈하게 잠들어 있는데 그가 읽던 《천수경》에서 경이로운 빛이 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날 또 이변이 일어났다. 글 한줄 못 외우던 최행자가 천수경 뿐 아니라 무슨 경이든 한 번만 보면 줄줄 외워 나갔다.

이 스님이 후일 대흥사 13대 국사의 한 분인 범해 각안 스님이다. 유명한 저서로 《동사열전》이 있다.

조실 스님은 선대 스님들로부터 들어온 「진불암」 창건 유래를 생각하며 또 한 분의 진불이 출현했다고 생각했다.

진불암을 처음 창건하게 된 동기는 옛날 남인도에서 불상과 16나한상 그리고 《금강경》과 《법화경》등을 모시고 온 배가 전라도 강진 땅 백도방에 도착한 데서 비롯됐다.

영조 스님 일행이 명당지를 찾아 인도 부처님을 봉안하던 날 밤, 스님은 꿈에 한 노인으로부터 「이곳은 후세에 진불이 출현할 가람이니라」는 계시를 받고 절 이름을 진불암이라 명명했다.

- 최영해



생활속의 밀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 세상의 아버님, 어머니, 저희 자식들을 열달 동안 온 정성으로 낳아 길러 주시고, 평생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양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정성에 감사

이웃을 이해하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살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공부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갖은 고생으로써 오로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혼신을 다해 뒷바라지 해 주신 데에 눈물로 감사드립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처신을 하도록 가르침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예의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을 이용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손해보는 듯 살아가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담과 혼육으로 늘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난사람 보다 된사람이기를 바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사 성실과 노력으로 살아 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 그러나, 아버님, 어머니, 늘 마음 아프게 헤드려서 죄송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 했는데, 그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늘 걱정만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살기 바빠서 아버님, 어머니를 가까이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모든 일에 아버님,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

고 수순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합니다.

명절때만 찾아 뵙고 자주 들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문안 전화를 자주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늘 전화만 받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참으로 불효한 자식입니다. 아프실 때 잠시 가서 병원으로 모시지 못하고 멀리서 전화로만 걱정을 해서 죄송합니다. 진심을 내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하고 마음에 상심을 드려서 더욱 죄송합니다.

캐네이션 하나 달아 드리는 것으로 아버지님을 다하는 것이 죄송하여 몸뚱이를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은 다 이해하시겠지 하며 쉽게 넘겨 버리는 속 좁고 우물찬 마음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해야 하는데, 많지 않은 시간임에도 또 내일로 미루는 것이 죄송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지도 않을 건데 말입니다.

부모 섬기는 법

▶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이 5월에 있어서 가정의 달이라 합니다. 단지가 의미뿐이었습니까?

5월의 따스한 봄날처럼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 이루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고 하는 편이 의미가 더 깊을 것입니다.

『육방예경』에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다섯 가지 일이 있으니, 첫째는 성실하게 재산을 경영하는 것이요, 둘째는 일찍 일어나 때맞추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요, 셋째는 부모에게 근심을 주지 않는 것이요, 넷째는 부모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부모가 병이 들면 곧 의사를 청하여 치료하여 드리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또 『장야합경』에는 「무릇 자식된 자는 마땅히 다섯 가지로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순해야 한다.

다섯 가지란, 첫째는 공양

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일을 부모님께 먼저 아뢰고 행하는 것이며, 셋째는 부모님이 하시는 일에 공순하여 거스르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부모님의 명령을 감히 어기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는 부모님이 경영하는 바쁜 사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착한 일 중에 가장 착한 일로는 효도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악한 일 중에 가장 악한 일로는 불효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인목경」의 말씀에 저절로 부끄러워됩니다.

스스로 불효자라 말하는 자식은 있지만, 세상의 모든 부모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큰 효자」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차이입니다.

「너도 커서 결혼하고 아이 낳아 길러 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아이 낳아 길러 본다 해서 부모심정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부모심정을 이해한다 해서 효도를 다하는 것도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해서 부모심정을 다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중생입니다. 내 자식이 미물 때가 있어도 내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는 때는 알지 못합니다.

▶ 부모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보부모은진언(報父母恩眞言)을 조용히 되뇌어봅시다. 「나모 사만다 못다남 음 아 나나 사바하... 아버님, 어머니, 낳아주시고 길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 오래 사십시오. <법경 정사/부산 정각사/법정원 연구원>



염주를 수제하여 소원성취, 즉신성불 이루소서!

염주속에 내마음과 불보살의 세계가 있습니다.

“염주는 모주가 있어 부처님이나 보살을 표시하여 모시게 되는 것이니 염주를 가지고 염불을 하게 되면 우리 중생이 지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고통과 슬픔인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인연을 얻게 되는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불을 하는데 수를 헤아리는 수주로서만 아니라, 불을 모시는데 염님이 되도록 도와주는 법구로서, 나아가 불보살을 상징하는 공덕주로서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어 모든 잡귀들이 보기만 하여도 도망쳐서 화를 쫓고 복을 부르는 신비한 열매까지 지니게 되며, 악한 자는 저절로 착한 마음을 지니게 되는 공덕을 갖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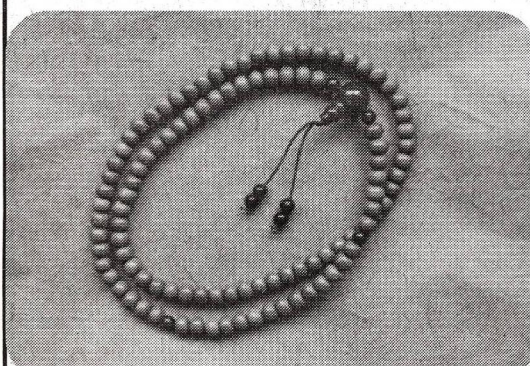
천은사 염주

알이 둥글고 고를 뿐만 아니라 단단하고 보기 좋아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벌쯤은 갖고 싶어 하지요. 손때가 묻을수록 반질반질 윤이 나면서 은은한 빛을 발하는 보리수 염주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 열매로 만든 데에 더욱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천축 염주

대나무는 일생에 단 한번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대나무 열매는 죽실, 죽미, 야맥, 죽실만, 연실 등으로 부르며 모양이 밀 보리를 닮았습니다. 중국의 고전 「장자」에는 봉황에 대해 「오동이 아니면 머물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는다」고 하여 대나무 열매는 봉황이 먹는 상스러운 열매로 알려져 있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대나무꽃도 더불어 상스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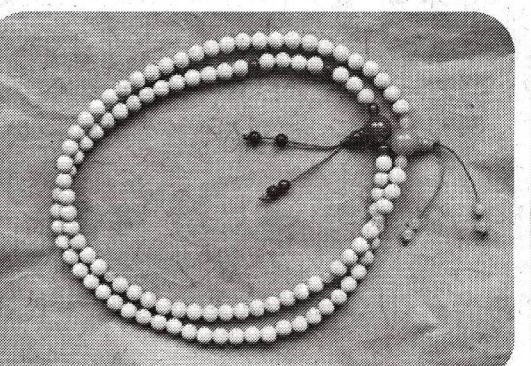
※ 구입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 ☎ 02-552-1080 · 통리원 사회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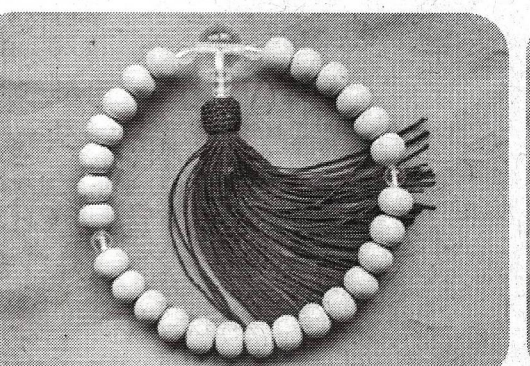
진보리수 108염주 ₩40,000



천은사 보리수 108염주 ₩35,000



천은사 54과 염주 ₩20,000



보리수 27과 단주 ₩15,000



천축 54과 염주 ₩20,000

충지문예

나의 자랑스러운
고장, 부산



한동원
동해중학교 2학년 2

황령산 위에 올라	끝없이 펼쳐진 바다는
부산을 보았네	우리가 가야할 길이고
당신은 아는가?	우리가 이뤄낸 발자취
당신의 눈앞에 비친	
아버지 부산을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느껴라
금정산 위에 올라	성공을 향해 향해하는
부산을 보았네	부산의 고동소리를
당신은 느꼈는가?	
당신의 마음 속에 펼쳐진	나의, 자랑스런 부산은
어머니 부산을	달리고 또 달릴 것이다
	우리 마음 속 불씨가
저 망망대해를 보라!	꺼지지 않는 한

금강경과 마음공부

법상 지음/ 무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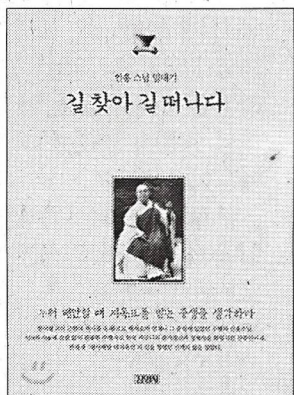
불교출판문화협회 '올해의 불서10'에 선정된 『반야심경과 마음공부』에 이어 5년여에 걸쳐 쓰인 또 하나의 생활 속 경전 실천서로, 법상스님은 『반야심경과 마음공부』 출간 5년 만에 반야심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경을 풀이하여 『금강경과 마음공부』를 출간했다.

인터넷에서 생활수행도량 '묵탁소리(www.moktaksori.org)'를 개설하여 많은 이들에게 수행과 명상, 자연과 환경, 종교와 지혜를 주제로 한 진지

한 깨침의 이야기들을 전하면 서 네티즌들에게 널리 알려진 법상 스님은 생활 속에서 삶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명상수행과 자연 속에서의 조화로움을 찾는 깨침의 글들을 조계 종 포교 사이트인 '달마넷' '한국일보' '법보신문' 등에 연재하면서 독자들과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길찾아 길떠나다

박원자 지음/ 김영사



근현대 한국불교 역사에서 '비구니 역사의 산증인'이라고 불리는 인홍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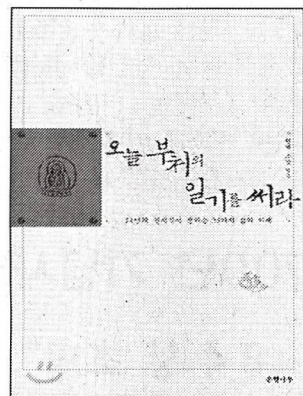
이달의 추천도서

님(1908~1997) 일대기. 동시대를 함께했던 원로스님과 제자스님들의 증언을 토대로 삶과 사상이 생생히 복원되었다. 부처님 당시로부터 면면히 내려온 비구니 승가의 출가정신을 회복시키고, 후학들에게 그 숭고한 수행정통을 세운 것이 바로 인홍스님이었다.

'오늘날 한국비구니 교단이 세계 최대 비구니 교단으로 형성되는 데 초석을 놓은 주역'이라고 기록되는 인홍스님의 구도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인홍스님의 법신을 기리는 자리가 될 뿐 아니라 한국 비구니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정립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늘 부처의 일기를 써라

원혜 지음/ 은행나무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성불할 그 자리에서 보면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먼 미래 부처님의 본생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회 때 "부처님 같이..."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미래 부처님의 본생담을 지금 하루하루 엮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 삶이 바로 부처님의 삶이란 말합니다. - 본문 <일체 중생이 미래의 부처님, 오늘 부처의 일기를 써라> 현봉 스님 법문 중에서

찰물 기행

혜우 지음/ 초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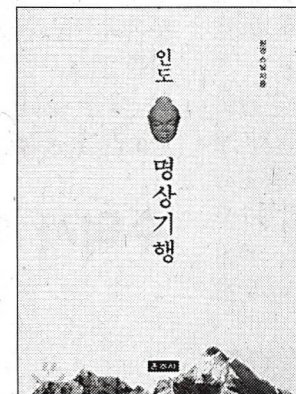
물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좋은 맛과 향이 나지 않는다. 20여년동안 차를 만들며 찻물의 중요성을 깨달은 저자가 두 해에 걸쳐 각 지방의 물을 찾아 다닌 경험이 모인 책이다.



물이란 무엇인지부터 실제로 물을 채집하여 검사소에 보내 성분을 분석하고 차를 우려 맛을 본 그 기록들이 세세하게 적혀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알리려는 저자의 노력이 엿보인다.

인도 명상기행

원경 지음/ 운주사



이 기행문은 불교적 시각에서 인도를 내용적으로 이해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어떤 역사적 유물이 가진 의미와 현재의 '나'라는 존재 사이에 설정된 관계성을 파악하려는 관점을 견지하려고 노력했다. 인도의 전지역을 다루지 못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이 같은 불교의 8대성지를 중심으로 순례를 하면서 명상수행과 사색에 따른 결과이다.

>저자 소개: 충북 청원 출생. 충북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속리산 법주사로 입산 출가하여 각현스님은 은사로 득도하고,자운 대중사를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였다.

이후 해운정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선 안거하였으며,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또한 스리랑카의 켈라니아 대학원 MA과정을 수료하고 동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소요강사 전통강원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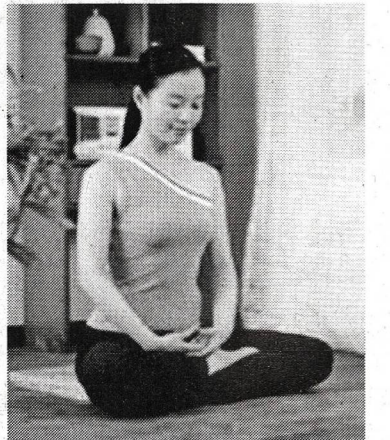
이달의 생활요가

하체 근살 쏙 빼는 '다리' 동작

이랫배, 엉덩이, 허벅지 등에 붙은 근살은 여간해선 잘 빠지지 않죠. '역물구나무'를 선 상태에서 시작, 다리를 내려 놓는 일명 '다리 동작'을 해주면 하체 근살은 물론 붓기까지 뺄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복식호흡

요가 시작 전 실시하는 복식호흡은 계절의 기운에 맞게 조금씩 달리 해주면 효과가 두 배. 생명체가 결실을 맺는 가을은 금(金)의 기운이 강해지는 계절로 기운을 축적하는 호흡법을 실시해주면 좋아요. 보통 때보다 숨을 많이 들이쉬고 조금 내쉬는 게 방법. 복식호흡을 할 때는 오른 다리가 왼다리 위로 오도록 반가좌로 앉아 입술을 자연스럽게 다물고 허리를 입전장에 붙인 다음 배가 볼록해지도록 숨을 들이쉬었다가 절정에서 잠시 멈춘 뒤 다시 길게 내쉬면 돼요. 한번에 10~15회씩, 세번 정도 반복해야 효과가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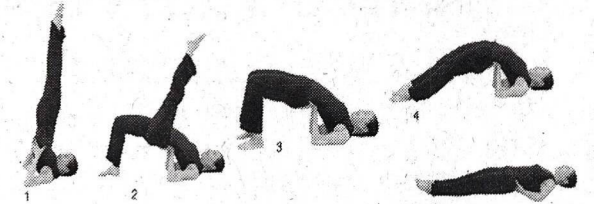


◆ '다리 동작'

1. '역물구나무 자세'를 완성한다.

▶ 천장을 향해 누워 양 손바닥을 등 뒤에 받친 채, 숨을 들이쉬면서 몸과 다리를 들어서 바닥과 직각이 되도록 거꾸로 선다.

2. 그 상태에서 숨을 내쉬며 오른쪽 다리를 굽혀서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는다. 양팔은 바닥에 붙여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몸을 지지한다. 왼쪽 다리는 최대한 곧게 하늘을 향해 뻗는다.



▶ 이때 왼쪽 무릎이 구부러지면 자세가 흐트러져 효과를 볼 수 없다.

3. 왼쪽 다리도 가볍게 구부러서 내려놓는다. 발은 11자를 유지하고, 머리와 어깨, 양 팔꿈치가 바닥에 닿아 있어야 올바른 자세다. 엉덩이가 바닥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허리의 긴장을 유지시킨다.

4. 무릎이 곧게 펴질 때까지 발을 움직이고 엉덩이는 최대한 들어올려 몸이 휘어진 활 모양이 되게 한다. 그 상태에서 3~4회 깊은 복식호흡을 한다.

▶ 발은 계속 11자를 유지한다. 엄지 끝이 허리를 감싸 쥐는 모양으로 위를 향하게 해야 자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무리하면 손목에 통증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5. 다시 한 발씩 펴서 역순으로 자세를 풀어준다. 팔다리를 편히 벌린 송장 자세로 마무리.

다 향

멀리서 나를 꽃이되게 하는 이여
향기로 나는 다가갈 뿐이다.

목조각품, 침향, 녹차(우전, 작설), 보이차, 오롱차, 고급자사호, 차도구, 생활도자기, 기타불교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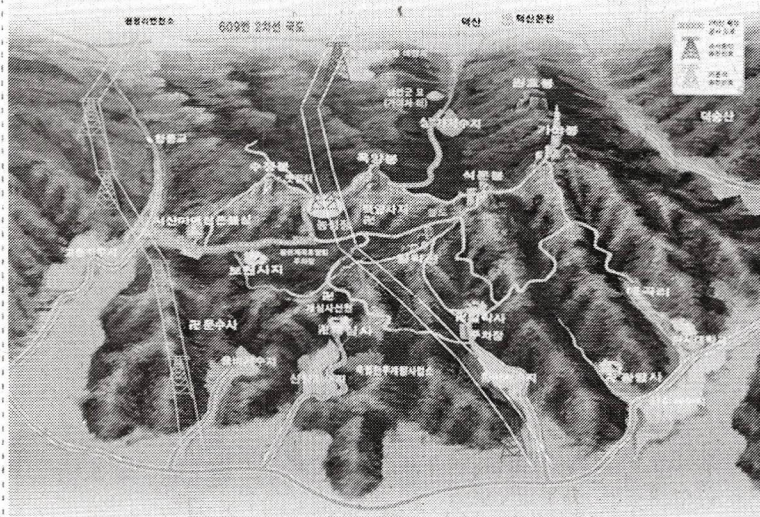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4, 충지사 옆

전화 : 02-2052-5741, 010-7372-3090



가야산을 '백제천년 미소 체험지'로

법응스님, 킷처투어 도입, 종합테마지 개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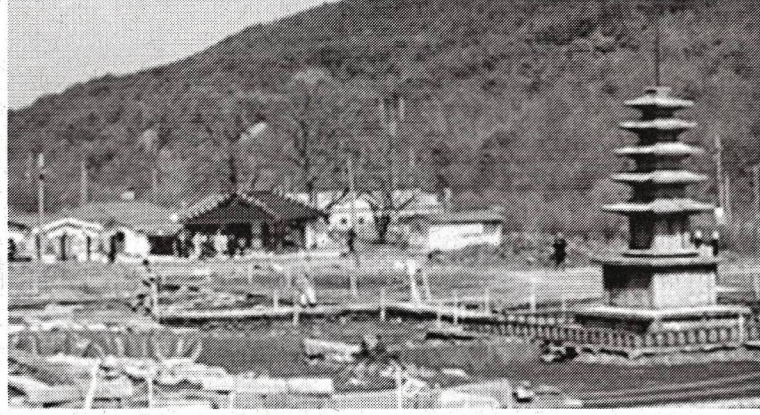


◇금북정맥의 최고봉인 서산 가야산이 송전철탄과 관통도로 건설 계획으로 훼손 위기에 처해 있다.

고압송전철탄과 관통도로 건설 계획으로 훼손 위기에 처한 서산 가야산을 자연·역사·문화유산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테마관광지구(green-eco-culture tourism)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된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인 법응스님은 '가야산 관통도로 건설에 따른 가야산 생태계 및 역사유적 보존에 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통해, "도로 통

과지 주변에 대한 발굴이나 생태계 보존의 구체적인 대책 없이 관통도로부터 건설한다면 환경과 문화재에 대한 회복불가능의 훼손은 물론 장기적으로도 관광자원의 파괴와 더불어 경제적 손실 또한 지대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에코투어리즘(ecotourism)에 새롭게 킷처투어리즘(culture tourism)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굴조사 중인 가야산 부원사지. 충청남도 서산시는 가야산 일대를 내포문화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가야산 관통도로를 계획하고 있다.

최근 불교환경연대와 교계언론에 배포한 A4 10장 분량의 의견서의 요지는, 역사, 문화, 자연을 체험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육성 쪽으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고, 미래형 대안으로서 가야산 일대를 '역사와 자연이 살아숨쉬는 백제 천년의 미소 체험지'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법응스님의 종합 테마관광의 개념을 '도로의 건설 등 일차 개발에서 탈피하고 일대의 종교시설, 온천, 유적, 풍경, 문화재, 박물관, 숙박시설, 교통시설, 유원지, 공원, 학습과 명상, 전통문화

체험장 등을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친환경적인 종합적 관광명소로 설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법응스님의 의견서와 관련, 생태계획·생태건축·공원관리·도로계획·문화재보존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서를 검토, '가야산 개발과 보존의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을 얻고 있다.

안개 속 해법 못찾는 제주불교

"화합으로 상생의 길 찾아야"



◇관음사 일주문에는 흰 광목천이 둘러졌다.

불기 2551년 부처님오신날을 재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때에 제주도 불교가 큰 혼란에 휩싸여 있다. 지난 4월 25일 오후 제주를 관장하는 사찰인 관음사에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실랑이가 벌어졌다. 일군의 스님들이 관음사로 들어서려하자 신도들이 이를 제지하고 나선 것.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으로부터 주지직무대행으로 임명된 시몽스님과 총무원 직원들이 주지직 인수인계를 위해 관음사를 찾았으나, 신도들은 "4월 20일 관음사 산중총회에서 선출된 진명스님이 아닌 주지직무대행은 인정할 수 없다"며 입구를 봉쇄했다.

관음사 일주문에 흰 광목천이 둘러지고 돌담에는 날카로운 철조망이 둘러쳐졌다. 관음사 정문 외에도 산길을 통해 진입할 수 있는 길목은 신도들로 보이는 이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입구에는 천막을 세워 신도들이 '강제 인수인계 시도 중단'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곳곳에 현수막이 나붙어 불쌍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관음사는 물론 관음사 종무소가 위치한 제주시 도남동 보현사 역시 철문이 굳게 닫혔다.

관음사 입구에는 "관음사 주지직에 대해서는 소송이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중이니, 판결이 날때까지 혼란을 막기 위해 출입을 제한한다"는 '고시'가 내걸렸다. 종단 내부의 문제를 사회법에 제소하는 상황에 까지 이른 것이다.

총무원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인수인계는 자제한다는 입장이 다. 인수인계를 위해 관음사를 방문했던 총무원 관계자는 "시몽스님의 직무대행 임기는 시작했으며 종법이 정한대로 인수인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원칙을 밝혔다. 아직까지 양측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구태를 보이지는 않았

지만 부처님오신날을 불과 한달 앞두고 벌어진 일어서서 안타까움이 크다는 것이 제주 시민들의 시각으로 보인다.

제주시내에서 만난 택시기사 강모씨는 "관음사의 문제는 열핏 들어 알고 있지만, 대부분 시민들의 바람은 무사히 부처님오신날을 넘길 수 있도록 화합해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갈등과 혼란을 해소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관음사 회주 종원스님과 시몽스님은 모두 종단의 중진이고, 제주 불교계의 현재를 일군 스님들이고 또 앞날을 책임진 스님들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두 스님은 아직까지 만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각국사 열반 다례재 개성 영통사서 봉행 천태종-조불련 11월 열기로 잠정 합의

남북 불교계가 공동으로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1055-1101)스님 열반 906주기 다례재를 11월14일(음력 10월5일) 개성 영통사(靈通寺)에서 봉행할 예정이다. 불교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스님은 22-23일 금강산에서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정서정 서기장 등을 만나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무원스님은 "행사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이른 시일 안에 개성에서 만나 협의할 것"이라면

서 "내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개성 영통사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불련은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평양 광범사에서 봉행하기로 했으며, 윤이상 평화재단이 추진했던 개성 영통사 음악행사는 열지 않기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천태종은 2002년 11월부터 북측 조선경제협력위원회와 공동으로 의천스님이 주석했던 영통사 복원사업을 진행해 왔다.

수덕사 대웅전 700년 기념사업 다채

"역사성-우수성 조명"

충남 예산 수덕사가 내년으로 창건 70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펼치기로 해 관심이 다. 23일 수덕사에 따르면 국보 49호인 대웅전의 창건 700돌을 한 해 앞두고 수덕사의 역사성과 우수성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키로 했다.

우선 지금까지 열지 못했던 '개산대제'를 열어 절의 장건을 알리기로 하고 통도사, 범어사 등 이미 다른 사찰에서 진행되는 개산제의 면모 등을 살펴, 수덕사 고유의 방향성을 정하기로 했다. 또 수덕사 대웅전이 지닌 역사성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한.중.일 학술공모전을 열기로 했으며 이를 토대로 학술세미나 개최와 함께 논문집 등도 펴내기로 했다.

아울러 수덕사 박물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古) 건축물 관련 자료와 1937년 대웅전 해체 복원 자료, 수덕사 대웅전 벽화 모사도, 일본 교토대학 공학부 건축

연구실 소장 자료 등을 모아 특별 전시회도 갖기로 했다. 이밖에 개산대제에 맞춰 인근 지역 각종 문화단체와 연계해 삼교 보부상 놀이, 당진 박첨지 놀이를 여는 등 각종 문화행사를 결합여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굴 계획이다. 또 수덕사 대웅전 모형을 제작, 전시 기간에 방문객들이 직접 조립해 볼 수 있는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우 봉 스님은 "건축 양식 등을 볼 때 수덕사는 백제시대에 창건된 고찰임에도 고증자료가 부족해 고려시대 절로 알려져 있어 안타깝다"며 "내년 개산대제 개최와 함께 대웅전을 비롯한 수덕사의 역사성을 새롭게 조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덕사 대웅전은 고려 충렬왕 34년(1308)에 지은 건물로, 지은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다.

총지종 집행부에 듣는다② - 재무부

"검약실천에 솔선수범 해야"



시정정사

쓰며 주십시오.

지난 집행부에 이어 다시 중책을 맡게 되니 걱정이 앞섭니다. 종단의 재정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부탁드립니다. 지난 임기동안 경험했던 바를 활용하여 개선할 점들은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재무부장 임기동안의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글썽요.. 일단 책정된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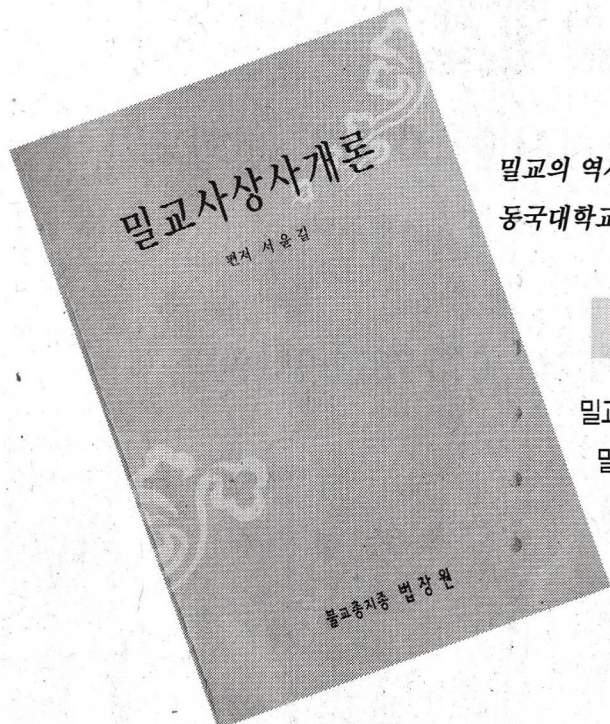
안에서는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할데지만, 재무를 맡은 쪽에서는 우선 '검약(儉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옛말에도 사치하면 아무리 부유해도 늘 모자라고, 검소하면 가난하면서도 여유 있다고 했습니다. 각자 솔선수범해서 더 각별히 검약을 실천해야 해야겠습니다.

▶재무부장직을 수행함에 있어 여러 난제에도 직면하실텐데, 무엇보다 어려움을 극복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종교인이나 행정적인 일과 함께 수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한다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불공정정도 병행해서 부처님께도 의지해야 겠죠.

▶종단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요? 역시 포교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교도와 교세가 확장돼야 모든 여건도 나아질 것인입니다. 의식이나 교화방편 등의 연구개발도 있어야 하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적극적인 제도가 이루어 져야 겠습니다.

▶종단과 불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다면... 종단은 종조님의 유지를 계승 발전시키는 책무에 더욱 매진하여 주시고, 교도 가족들께서는 진언행자로서 수행과 일상생활을 조화롭게 꾸려 나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밀교사상사개론』



밀교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 개론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서운길 교수의 7명의 밀교학자가 공동 집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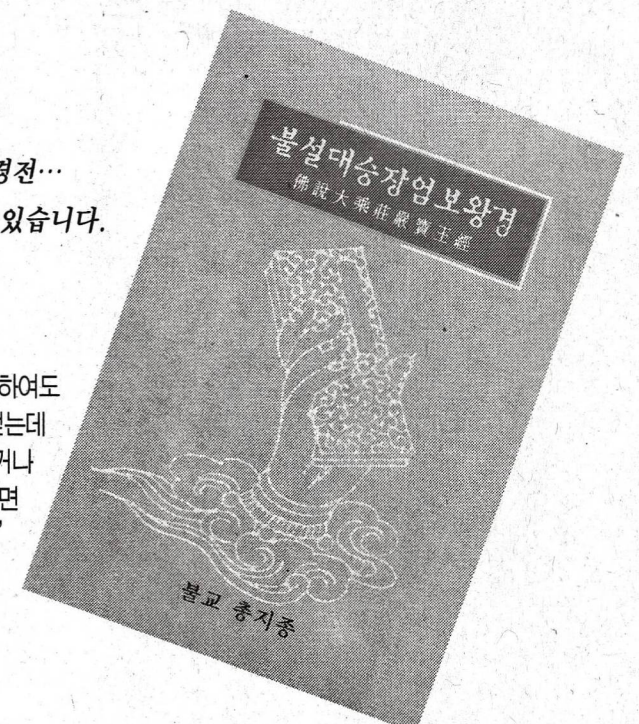
주요내용

밀교란 무엇인가/밀교의 기원과 형성/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그 교학적 배경/밀교의 수행과 실천/한국의 밀교/ 부록:한국현대밀교와 원정대사

국판/437페이지/정가 15,000원

『불설대승장엄보왕경』 (佛說大乘莊嚴寶王經)

육자대명다라니(음마니반메후)의 유래와 공덕을 실한 경전... 이 경을 지니기만 하여도 무량한 복덕과 안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오직 이 경의 이름만 생각하여도 이러한 이익과 안락을 얻는데 만약 누군가 이 경을 듣고 베껴쓰거나 수지하거나 독송하거나 공양하고 공경하면 그 사람은 항상 안락을 얻을 것이니라." ---본문 중에서 ---

변형 국판/130페이지/정가 7,000원

도서출판 불교 총지종

Tel:(02)552-1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6-2



'가정의 달'은 부처님 품안에서...

전국 사찰-교계 복지관 '사랑나눔' 풍성한 행사

◇불교계 '가정의 달' 행사

주최단체	내용	일시 및 장소	전화번호
광진복지관	효사랑나누기	5월 8~19일	(02)466-6242
서울노인센터	나눔의 등 축제	~5월25일	(02)739-9501
신길복지관	세계문화축제	5월25일 복지관	(02)831-2755
은평도서관	효 글쓰기 공모전 등	5월 4일~12일	(02)385-1671
자양복지관	순제협캠프 등	~5월23일	(02)458-1664
서울조계사	어린이 잔치	5월 5일	(02)732-2183
금정구복지관	어린이동요제 및 그림공모전	5월12일	(051)532-0115
물운대복지관	경로잔치	5월12일 복지관	(051)264-9033
용호복지관	용호장승축제	5월 5일~7일	(051)628-6737
강화 선원사	어린이 연극개기체험	5월 5일~6일	(023)933-8234
부안 내소사	순제협 템플스테이	5월 5일~6일	(063)583-3035
명륜복지관	은빛가요제	5월 8일	(033)762-8131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전국 각 사찰과 교계 복지관은 다양한 행사를 연다. 오는 5일 어린이 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8일), 부부의 날(21일) 등이 이어짐에 따라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한 다채로운 일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스님)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효사랑나누기한마당을 개최한다. 효사랑한마당은 민수무강 칠·팔순잔치(8일)와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로축제(11일), 추어의 운동회(11일), 한어르신 실버미팅(19일) 등을 통해 관내 노인들에게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일문스님)는 지난 4월 2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한달동안 '나눔의 등 축제-효(孝)로 가는 길' 행사를 개최한다. 나눔의 등 축제는 전통 등 만들기 체험에 이어 무료급식사업-공양미 삼백석, 효도 건강검진, 탑골 탁구대회, 청각장애어르신등반대회, 우리공 나들이, IT월드 현장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또한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조계사 불교대학은 오는 8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어버이날 경로 행사-어르신, 당신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라는 경로잔치를 열어 노래와 무용, 풍물패 공연을 선보인다.

서울 은평구립도서관(관장 염무성)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도서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책과 더 친해질 수 있도록 '도서관 대탐험' 행사를 연다. 또한 마술쇼와 함께 하는 인형극과 효 글쓰기 공모전 등을 함께 개최

한다. 강화 선원사(주지 성원스님)는 오는 5일과 6일 연근(연꽃뿌리) 캐기 체험 행사를 갖는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원스님)는 오는 5일과 6일 이틀동안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순제협 템플스

테이를 개최한다. 짝짓기놀이, 내 나무 째기놀이, 다람쥐놀이, 나무잎에 엮서쓰기, 만다라만들기 등을 통해 자연 속에서 가족간의 정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불교계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 대법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최 불교방송 주관



◇롯데호텔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노무현 대통령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등 정·관·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화합과 국운융성을 기원하는 대법회가 봉행 되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가 주최하고 불교방송(사

장 흥승기)이 주관한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 대법회'가 4월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불기 2551년 부처님오신날(5월 24일)을 맞아 국민화합과 국운융성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인 김병조 씨의 사회로 식전 축하공연이 열리는데 이어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송, 헌등의식 등 불교 전통의례에 따른 대법회가 진행됐다.

이 행사에는 노무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이상득 국회 부의장, 이해봉 국회 정감회 회장, 이재정 통일부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이용철 코오롱 회장 등 정·관·재계 인사와 조계종·태고종·천태종 등 27개 불교종단대표,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건 상임대표 등 550여 명이 참석했다.

장애우 3백명 합동 수계 장애우 3백명 합동 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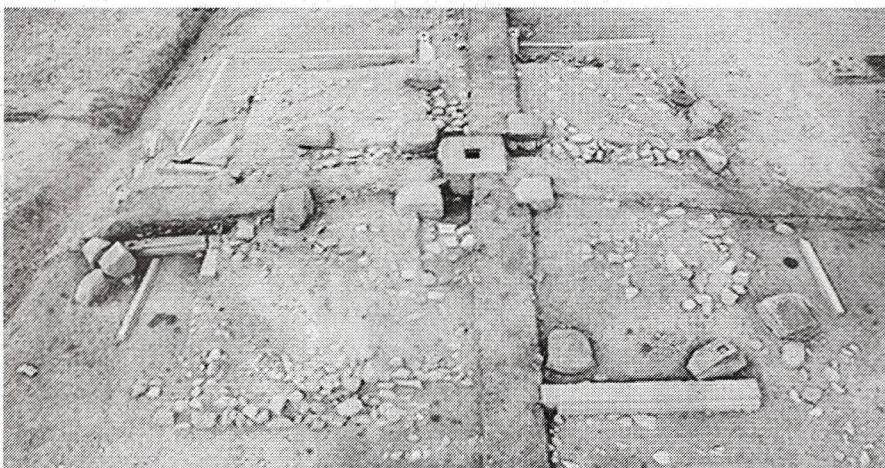
조계사 봉축행사 '장애우 수계법회' 마련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장애우 300명이 합동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를 약속하는 수계법회가 열린다.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장애우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조계사 장애인포교단체인 원심회와 인연을 맺은 장애인 150여 명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참가 접수를 받은 장애인 150여 명 등 300여 명이 참여한다.

조계사 기획국장 영공스님은 "불교계에서 장애인의 날을 즈음해 공원나들이 등 행사를 꾸준히 진행해 왔지만, '법회' 또는 '수계'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장애우 수계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계사를 자청하고 나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조계사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갖가지 봉축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경주 사천왕사지 2차 발굴조사 실시

서목탑지 심초석하부에 대한 정밀조사



◇경주 사천왕사지.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는 지난 달 3일 발굴조사 개토제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 사찰인 경주 사천왕사지의 2차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목탑지 심초석하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비롯해 서회랑과 연결되는 남·북회랑지·중문지 등에 대한 유구 확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천왕사는 통일신라 초기인 문무왕 19년(679년)에 창건된 사찰로서 쌍탑식 가람배치를 처음으로 이루며, 특히 2기의 목탑이 배치된 사찰로, 이후 통

일신라 사찰가람의 전형을 이룬 곳이다. 특히 불교 건축사에 있어서 이보다 다소 늦은 신문왕 2년(682년)에 창건된 감은사 동·서 삼층석탑과 함께 당시의 건축과 미술은 물론이고, 불교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수습되어 섬세한 조각과 생동감이 넘치는 표현으로 그동안 학계의 주목을 끌었던 소위 녹유사천왕상전과 같은 형태의 녹유벽전이 2006년 서목탑지 발굴조사시 원위치에서 확인됨으로써, 이 녹유벽전이 기단부를 장식하였던 면석(面石)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고려대장경 밀레니엄 기념사업' 추진

고려대장경연구, 국제 대장경 네트워크 구축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가 오는 2011년 고려 초조대장경 조성 1천 주년을 기념해 '고려대장경 밀레니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지난 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1년 고려대장경 천년의 해 선언식'을 개최했다. 고려대장연구소는 향후 '천 년의 지혜를, 천 년의 미래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국제 대장경 네트워크 결성 및 학술회의 △한일 또는 한중 학술교류 △아시아 지식 문화 교류의 역사 등 국제 학술회의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의 대장경전과 실�크로드 아시아 지식·문화 교류전 △아시아 출판인쇄문화전 등 다양한 전시회와 '대장경과 천 년의 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예술 공연을 전개한다.

이어 고려팔관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2011년 주제행사 고려 팔관회'와 '천년 타임캡슐 밀레니엄 기념탑 건립도 건립할 계획이다. 남북화해와 통일의 비전을 통한 평화의 메시지가 담길 예정인 기념탑은 고려대장경의 고향인 개성에 건립된다.

이와 관련 종림스님은 "미완의 역사 고려대장경의 천 년을 복원하는 일은 IT 강국·지식기반사회라는 우리 시대

의 꿈을 실현하고, 나아가 아시아의 지식문화·아시아의 르네상스를 위한 모델이며 서구문명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스님은 또 "의천스님은 고려대장경을 통해 과거·현재·미래 천년을 이었다"며 "우리도 고려대장경의 천년 역사를 발판으로 미래 천년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추진을 위해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장은 종림스님을 비롯해 루이스 랭카스터·이아령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공동으로 맡는다.

Visual Communication Advertising design Editorial design



기획 인쇄물 전문

- 광고기획
- 홍보전단
- 카타로그
- 브로슈어
- 리플렛
- 팜플렛
- 사보
- 서적류(양장,무선)
- 다이어리
- 명부(수첩)
- 쇼핑백
- 각종봉투
- 카렌다
- 앨범
- 샘플북
- BOX류
- 행가,행택
- 스티카,리벨
- 청첩장
- 연하장
- 메뉴얼
- 현수막
- 상패,트로피
- 판촉물

사무실 / 디자인실
 서울·중구 인현동 1가 124-3호
 호수빌딩
 TEL : 2277-2900(대), 2277-3639
 FAX : 2277-3668
 H·P : 018-361-9663

공장
 서울·중구 인현동2가 215
 TEL : 2265-5356
 E-mail : orient-kim@hanmail.net
 Webhard : ID-dong455667
 PW-455667

기타 일반인쇄물 및 광고 판촉물 일체

동림기획
 Orient Communications
 代表 金東雲 (佛名:修正)
 관성사 교도

총기 FOCUS

/부산 정각사

즐겁고, 신명나는 진언수행도량 부산 '정각사'



이동수가 적어 운영이 힘들던 정각사 부설 바라밀 지역 아동센터가 지금은 정원을 초과해 수개월을 대기해야 한다.

총지종 진언밀법 포교의 핵심도량 부산 정각사가 바뀌고 있다. 정각사는 그동안 양적인 성장에 인주한 채로 사실상 부유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신년 초 일신의 바람이 도량에 불기 시작했다.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벗고 현대적이고 적극적인 포교를 해보자는 생각들이 모였다. 정각사는 지금 변화와 발전이란 명제를 놓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각사는 총기 1년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 태동했다. 초대 주교 정각원 스승의 자택을 무상 시주 받아 설단불사를 한 후, 부산선교부로 개설하였다.

총기 4년 총지서원당으로, 총기 6년에는 정각사로 개칭하고, 사원신축 헌공불사를 봉행했다. 총기 24년에는 도량 옆에 지하2층 지상4층의 부속 전당을 신축하고 어린이집과 사택 등으로 활용했다.

지난 1월 신임 정각사 주교로 역대 통리원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법공 정사가 임명됐다. 아울러 통리원 사무국장이었던 법경 정사와 도현 정사가 파견됐다. 종단에선 총지종

주력 사찰을 책임질 역량 있는 승직자 배치가 급선무였던 것이다.

지금 정각사는 좋은 설법을 듣기 위해 신도들이 대거 모여 드는 한편, 이동수가 적어 운영이 힘들던 부설 바라밀 지역 아동센터가 정원을 초과하고, 컴퓨터와 요가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문화센터가 가동되는 등 포교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창의적 발상으로 교화 활성화

“교도들이 원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 내는 것이 첫 번째고, 그런 다음엔 원력과 확신이 있어야 겠지요. 그래야 교도들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포교 일선에 임하는 승직자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공주교는 14년 전에 정각사 주교를 맡아 대종교화에 큰 성과를 거뒀다. 재부임 후 첫 번째 한 일은 교도들의 욕구조사였다. 경영학적 발상이었다. 결과는 대성공.

“나이 지긋한 보살님들이 제일 배우고 싶어 하는 건 컴퓨터였습니다. 의외였죠. 말만 그러는 줄 알고 신청서를 받았습시다. 서둘러 강의 공간과 장비를 마련하고 개강을 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난달 초에 컴퓨터 강좌 개강불공을 했는데 호응이 커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자성일날 저녁엔 노부부가 나눠서 컴퓨터를 배우기도 한다고.

도현 정사가 강좌의 기획과 실무에 강사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역수로 재미있어 합니데이! 한시간 내내 컴퓨터 전원을 켜다 끄다만 하면서도 그렇게 좋아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컴퓨터를 몰라서 느꼈던 소외감도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수강자들은 앞으로 이메일, 인터넷 쇼핑, 뱅킹, 게임까지 하고 싶어 한다고. 정각사는 이번 컴퓨터 강좌 프로그램의 성공을 발판으로 불교교양대학과 불교 한문, 명상체조수련, 노래교실 등의 다양한 강좌를 준비하고 있다.

정각사 법경 정사는 종단 홍보와 포교를 위한 대외활동에 앞장 서 얼마 전엔 부산불교방송 포교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렇게 정각사가 초기에 정상을 되찾고 포교가 활성화 되기까지는 주교인 법공 정사의 노고가 뒷받침 되어 있었다. 법공 주교의 설법은 승직자나 교도사이에서 정평이 나왔다. 총지종의 부류나인 셈. 이는 다년간의 교화경험과 철저히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다년간 각종 자료를, 꼼꼼히 기록해 둔 두툼한 설법교안이 있을 정도다. 월초불공때엔 한 가지 주제를 잡아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설법한다. 한자에도 밝아 설법 중간 중간에 재미있는 한자속어를 곁들인다.

“불교신행에 있어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승직자는 물론 교도 자신도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공 주교는 종단 수행의 장점인 주제 주유주 수행과 월초불공에 정성을 기울일 것을 강조한다. 육주주 수행은 복잡하고 바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수행일 뿐 아니라 누구나 쉽게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특히 월 초 7일불공은 집중수행을 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는 것.

부처님 가르침 이해 필요

“서산대사는 선가귀감에서 현세에 지은 업은 쉽게 바로 잡을 수 있으나 오랜 기간 운회하면서 지은 속업은 풀기 어렵기 때문에 필히 진언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설교하셨습시다. 우리 종단은 이렇게 아주 좋은 수행법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데엔 소극적이었던 같습니다”

법공 주교는 또 육주대명다라니 사경공덕을 강조하고 교도들에게 사경수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정각사는 남자 신도 수 배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남자 교도모임 단월회를 구성하고 포교와 신행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단월회는 이미 수십년 전 창립됐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명맥이 끊어져 있었다. 이달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 단월회는 앞으로 정식 모임과 등반, 야외회, 사회봉사, 등의 모임을 정례화 하기로 했다.

정각사는 이와함께 청년회를 재창립하고 청년 포교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3월 초 창립법회를 봉행한 청년회는 교도 자녀 중심으로 회원을 늘리는 한편 젊은 불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알기 쉽고 재미있는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해 청년불심 제고에 앞장 서겠다는 계획이다.

법공 주교와 신임 스승들이 정각사에 부임한 지 3개월. 그동안 침체되었던 도량 분위기가 되살아 나고, 승직과 교도는 이구동성으로 정각사의 앞날이 자못 희망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상태라면 정각사가 신도들로 넘쳐났던 옛 명성을 되찾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종단의 포교 거점도량 부산 정각사의 발전이 종단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부산=윤우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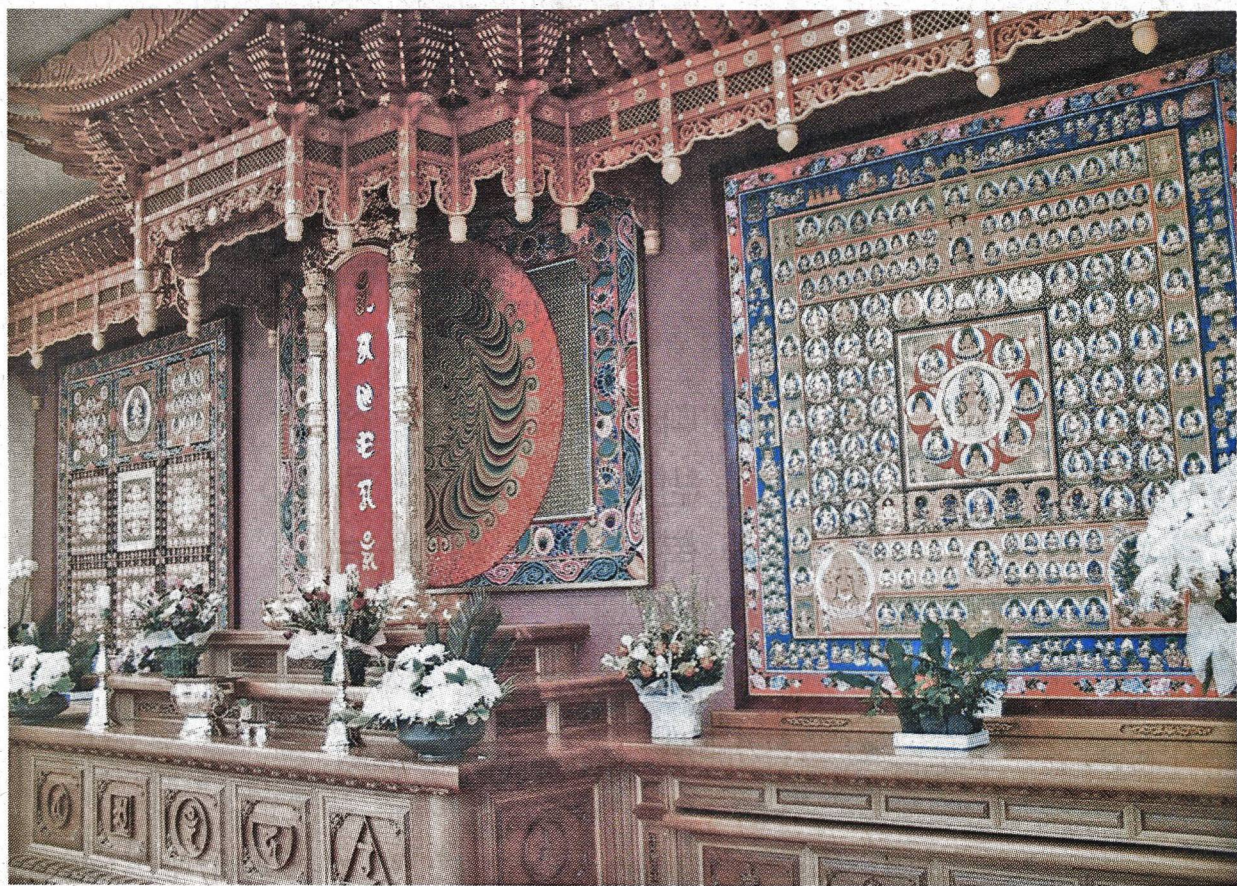
부산 동래 정각사 정경.



컴퓨터 강좌.



신행 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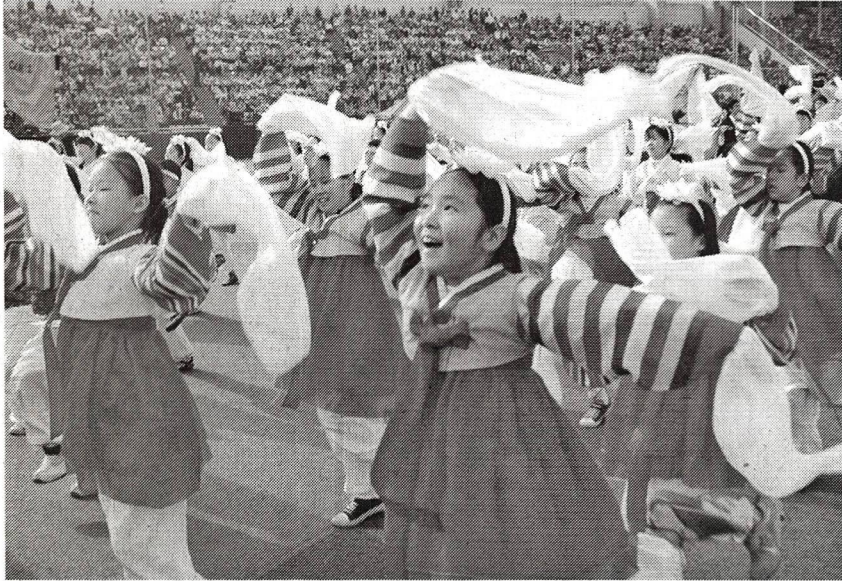
총지종의 불단 중앙에 옴마니반메훤 본존. 오른쪽 태장계 만다라는 중대팔엽원을 중앙으로 414존의 보살을 모시며 생명의 성장과 탄생을 의미한다. 왼쪽 금강계만다라는 아홉개의 작은 만다라로 1,461존의 보살을 모시고 부처의 경지,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를 나타낸다.

법신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고 관세음보살의 본심진언인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훤의 주옥같은 진언(眞言)과 유가삼밀 관행법으로 진언을 염송함으로써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진언의 세계에서 업장을 소멸하고 즉신성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불교총지종
The Buddhism chongjijong

부처님 같이, 세상을 향기롭게

20일 연등축제 등 행사 다채



불기(佛紀) 2551년 부처님 오신 날(5월24일) 봉축행사가 5월 9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의 장엄등 점등식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연등행사와 제등행진, 각종 봉사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장엄등 점등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관 스님을 비롯한 각 불교종단의 주요인사와 신도들이 함께 참여하며, 점등식과 동시에 광화문~경복궁 경회루 구간에 설치된 가로연등이 일제히 밝혀진다.

지난해부터 '국민축제의 장'으로 시작된 연등음악회는 5월 20일 오후 9시30분 연등축제 회향한마당이 열리는 종각사거리에서 있을 예정이다.

봉축 법요식은 5월 24일 오전 10시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각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된다.

올해 봉축기간 중에는 특히 여러

운 이웃을 돕는 자비의 행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수원지회는 5월 5일까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와 함께 나누는 부처님의 마음'을 진행한다.

조계사는 5월 10일까지 전국 군부대의 장병과 교도소 재소자, 독거노인들에게 자비의 선물 보내기 행사를 마련하며, 봉축위원회와 전국 17개 대형 병원의 법당은 5월 24일까지 병실에 '병원 연꽃등'을 전달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전국 주요 사찰을 대상으로 다음달 29일까지 '이웃을 위한 희망의 등 밝히기' 행사를 추진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5월 5~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이웃을 위한 3000배 정진기도'를 열어 법회 보시금 전액을 불우한 이

웃에 전달한다.

충지종은 서울 동대문 운동장에서 열리는 연등축제에 서울경인지역 스승들과 연희단, 풍물패, 교도 등이 참석하여 중단 상징 장엄등을 필두로 발원지를 적은 연등을 들고 연등

행진을 한다. 부산에서도 동해중학교 불교반 학생들의 풍물패를 필두로 하여 부산경남지역 스승들과 교도들이 참가하여 축제 한마당을 연합함으로써 충지종의 위상을 제고한다.

세계재가불교자대회 개최

불교총지종 주관 10월경

세계재가불교자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문화관광부의 예산 지원과 종단협의회의 협조로 금년 10월 중에 개최될 이 대회는 기존의 출가승 위주의 불교지도자대회와 달리 미주, 유럽, 호주 및 아시아 각국의 재가불교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총지종 중앙교육원(원장 대령 화령정사)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재가불교지도자들이 모여 현대사회에서의 재가불자들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며 아울러 우리나라의 재가불교의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3박 4일에 걸쳐 진행될 이번 대회에서는 재가불교의 역할에 대한 세미나 이외에도 한국의 불교와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마지막 날은 부산 정각사에서 본 종단의 법회를 참관하고 한국전통문화 소개하는 공연을 가지기로 했다.

본 대회의 기획 간사인 교육원 보정연구원에 따르면 앞으로의 불교포교는 출가승 위주가 아니라 재가불교 위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전 세계의 재가불자들

연결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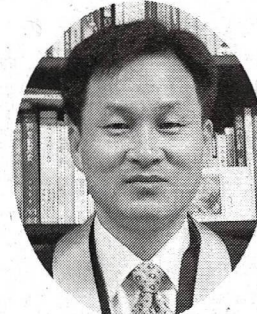
출가환경이 과거와 달리 열악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현대사회에서 출가승들의 포교활동이 제한적인데 반하여 재가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불교의 생활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구미의 불교도들은 대부분이 재가불자로서 종단이나 종파를 초월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더욱 적극적이다.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여 재가불자들의 역할과 재가불교의 발전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기회를 가지며 전 세계 재가불자들을 단결시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불교포교를 위한 상호정보교환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본 대회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한다.

중앙교육원에서는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매년 이러한 대회를 개최하여 전 세계 재가불자들의 단결과 상호협력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하여 불교총지종을 전 세계에 알리므로써 종단의 위상을 제고하고 포교의 활성화를 기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가정의 달 특별 칼럼

행복한 가정, 건전한 가정



화령정사 (중앙교육원원장)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다. 가정이란 한 사람이 태어나 자라나고 노후를 보낼 때까지 고통과 기쁨이 함께 있는 곳이다. 가정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곳이어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내 몸 같이 보살피고 이해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그 가정은 아름다운 꽃동산이 될 것이지만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화하게 되면 마치 폭풍우가 휩쓸고 간 황폐한 정원처럼 된다.

건전하지 못한 가정, 행복하지 못한 가정은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 건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행복한 가정, 건전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훌륭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원을 가꾸듯이 항상 가꾸고 보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계속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면 사회도 원만하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현대사회의 많은 병폐들의 근원이 가정에서 비롯된다. 부부 간의 불화로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와중에서 가정을 잃은 아이들이 생겨나 바르게 자라지 못하게 된다. 이들은 비뚤어진 사고를 가지게 되어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바쁜 현대생활로 인하여 부모와 자식 간

행복한 가정은 화목에서

불국정토의 시작은 가정으로부터

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야기되는 문제들도 많다.

세상에 완전한 가정은 없다. 인간세상은 고락이 반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느 가정이나 걱정거리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다. 집집마다 읽기 어려운 것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 탈 없이 보이는 가정도 남에게는 드러내놓기 어려운 걱정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가정은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같이 나누고 어려움과 슬픔 또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감싸주기 위해 존재한다.

완전한 가정을 이루려고 굳이 애쓸 필요도 없다. 단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그것은 화목에서 시작된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의 행복과 발전은 화목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서로 화목하며 아껴주는 마음이 있고 품이 있으면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 건전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간의 마음가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결코 물리적환경의 좋고 나쁜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넓고 큰 집에 고급 가구며 비싼 가전제품, 그리고 온갖 그림이며 화초로 장식되어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가족 구성원이 서로 반목하고 사랑이 결핍된 가정은 쓸쓸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비록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감싸안아주는 가정은 희

리 하면 가꾸지 않은 정원에 잡초가 자라나고 해충이 득실거리듯 불화와 증오의 씨앗이 트게 된다.

훌륭한 가정을 이루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부모가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간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면 부모의 역할을 바르게 수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서는 혹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상대방을 먼저 비난해서는 안 된다. 엄청난 불행도 시작은 사소한 오해와 다툼에서 비롯된다. 비난과 원망에 앞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잘 돌이켜 보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화목한 모습, 품위 있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이게 되고, 자식들도 부모를 존경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하게 된다.

가정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길러내는 기초교육장이다. 가정에서 아이들은 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사랑과 화목을 배우게 되며,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 육성의 디딤돌이 된다. 행복한 가정, 건전한 가정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사회도 밝고 건전하게 된다. 불국정토의 시작은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사회 구성단위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며 그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화목이다. 그리고 이 화목은 서로 이해해주며 격려해 주고 감싸주는 자비로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세상사는 이야기

요즘 우리 사찰에서는 보살님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나온다. 사찰에 오시는 모든 보살님들의 마음을 밝게 해 주고 저절로 미소를 짓게 만든다. 법당에 들어 서면 작은 방에서 흘러나오는 환한 불빛과 함께 기분 좋은 웃음들이 자석에 쇠붙이가 이끌리듯이 우리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준다.

이 밤은 보살님들이 부처님 탄생하신 초파일의 맞이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환히 밝혀 줄 연등을 만드는 장소이다. 먼저 꽃잎을 예쁘게 만드는 일부터 시작한다. 하루 이틀, 지날수록 빨강, 분홍, 노랑, 흰색과 녹색 잎이 곱게 만들어져 상자마다 가득 담긴다.

드디어 '연등'을 만드는 날이다. 풀을 바르는 보살님, 꽃잎을 붙여 '연등'을 완성하는 보살님, 다 만든

'연등'을 옮기는 보살님, 누가 할 일을 하나씩 정해 준 것도 아닌데 보살님들이 스스로 잘 하고 계신다. 우리 모두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한 마음 때문이리라. 보살님들의 고운 손에서 태어난 '연등'이 우리들의 환한 웃음과 함께 활짝 꽃피울 날을 기다리며 줄지어 있다. 나도 환희에 찬 이 일에 동참했다. 지난 해에는 연꽃 잎을 만드는 것으로 만족해 했으나 올해에는 연꽃 잎을 다 만든 후 드디어 연꽃을 피우는 일에 동참했다. 내 손에서 하나의 '연등'이 완성될 때 마다 그 경이로움은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의 마음과 다름이 없으리라.

내가 만든 '연등'에 어느 누구의 간절한 서원을 간직하고 불을 밝힐지 상상해 본다.

부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환히 밝혀 주어,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져, 행복한 날만 찾아와 주기를 염원 해 본다.

'연등'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모

낸 '연등'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떠올릴 수 있겠는가? 꽃잎 하나 하나에, 보살님들의 정성과 서원과 환희가 응집 되어 있지 아니한가?

한편 연희단도 '부처님 탄신 봉축 축제'에 참가 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 하고 있다. 바쁘신 중에도 부처님 탄신 축하와 우리 종단 행사에 적극 참여 하는 것이 곧 종단과 가족과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일념하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연희단 보살님 한 분, 한 분이 모두 연꽃을 닮은 아름다운 분들이다. 이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이들이 진정 살아 있는 연꽃이 아니겠는가? 조용하지만 하던 우리 사찰에 '연등'이 꽃을 예쁘게 피우고 '연희단' 보살님들의 연꽃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더 해져서, 사찰 가득 환희와 기쁨이 넘쳐 흐른다.

이 환희와 기쁨이 널리 퍼져 모든 가정에도 넘쳐 흐를 것이다.

- 박묘정

'연등을 만들며'

행복하고 순수한 미소를 전해주는 뽐 스튜디오



행복은 마음속에 있는 것,

행복한 마음까지 담아내는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에 감춰진 추억의 책장을 넘기는 순수하고 환한 미소

뽐 스튜디오는 여러분에게 행복과 사랑을 전어드립니다.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태영프라자 동관2층, 뽐스튜디오

찾아오는 길 : 지하철 3호선 주엽역 8번 출구 5분거리

전화 : (031) 915-3856 정진욱 실장 (승우섭 보살 산님)

홈페이지 : bomstudio.com



진언행자의 가족을 찾아서 | 부평 시법사 이정숙 교도

“마음 묶어 놓을 곳을 찾아야 합니다”

60년대 부산의 한 시장터 동네 어귀.
 “야, 니가 얼마나 잘났어?” “그래, 잘났다, 왜 어쩔건데?”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던 시절이어서 남은 커녕 자기도 돌아볼 여유가 없어서였을까. 사람들의 언행은 거칠기 짝이 없었고, 이기적이기만 했다. 신접살림을 살던 새벽은 자기를 잃어 버리고 어리석음에 떨어져 아동 바동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다. 새벽은 세파에 따라 요동치는 내 마음을 묶어 놓을 곳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조바심이 들기 시작했다.

부평 시법사 신도회장 선효인(이정숙, 71) 보살의 입교동기는 그렇게 남달랐다. 대개 구병을 위해, 당장의 소원성취를 위해 종교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효인 보살은 오로지 마음을 닦아 보겠다는 의지에서 서원당을 찾았다.

“산중 깊이 은거하고 있는 절이 아니고 생활속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여러 말씀 중에서 ‘사대 육신이 허망해서 집착할 바가 못된다’는 <무상계>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지수화풍으로 돌아 간다는 엄연한 사실을 알고서 수행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 수정동 범석심인당에서 처음

수행을 시작했을 때에는 새벽별을 보고 일어나 향송을 시작해서는 저녁별을 보고서야 마치는 일이 다반사였다. 보통 새벽 4시면 저절로 눈이 떠졌는데 혹 못 일어나는 경우엔 마치 신중님이 그러시는 듯 누가 뒷통수를 ‘탁’ 쳐서 깨우기도 했다.
 진언수행을 한 지 40여 성상이 흐르는 동안 선효인 보살과 가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남편 윤환섭(74) 각지는 수행이후 눈에 띄게 달라졌다. 사업일로 바쁘고 무절제했던 생활도 바뀌고, 수행에 있어서도 더없이 좋은 도반 역할을 하게 됐다. 슬하의 세 딸은 독실한 진언행자가 되었고, 외손자들도 모두 절에 다닌다.

화재가 났다. 사고 수습 후에 남은 것은 재봉틀과 작은 고리짜분.
 “그렇게 암담했을 때 각자님에게는 한 마디만 말했죠. 이렇게 됐어도 종지는 변함이 없고, 신앙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각자님은 이해와 위로를 해주더군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부산 생활을 청산하고 상경을 해서는 인천 송현동 심인당을 찾았다. 그 후 서울 율곡동, 보문동, 서대문 등지의 서원당과 관성사, 지인사, 총지사 등을 다니며 수행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지금 다니는 시법사의 전신은 근처 상가건물에서 '88년도에 개원한 정혜서원당. 선효인 보살은 허약한 몸에도

아 앉으셨죠. 시간을 아끼신 거죠.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삼업 소멸과 보시하고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닦는 육바라밀행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새벽불공을 하면 교화 안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효인 보살은 각종 초기 훌륭한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신행해 온 것을 더 없는 복이었다고 말한다. 아울러 현 종단과 스승님들에게는 가정 불공과 가족제도에 좀 더 힘을 쏟아줄 것을 당부한다. “예전 스승님들은 가정 불공과 개인상담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가족제도에도 힘을 보태주세요. 종단에서도 가족제도를 하는 교도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무상(無常) 깨닫고 발심수행(發心修行) 미래위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 투자해야

“7살난 손주가 염주를 쥐고 진언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낙입니다. 식구들이 제 수행을 이해하고 열심히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마음 편할 수가 없어요”

선효인 보살에게도 인생의 고비가 여러 번 있었다.

한 번은 부산에서 하던 사업장에 큰

불구하고 새벽 서너시에 절을 찾아 불철주야로 진언수행을 해나갔다. 운신이 힘들 정도로 쇠약해 졌을 적엔 부의금을 놓고 가는 도반들도 있었다고. 보살은 그런 몸을 이끌고 부평에서 서울 총지사를 오가며 수행에 전념했다. 너무 기력이 없을 때엔 아예 절에서 49일을 숙식하며 불공을 했다. 이런 모습을 가장히 여기셨는지 당시 본산에 계셨던 원정 종조님께서 불러 말하셨습니다.

“걱정 말아라. 명도가 안 죽는다. 그건 그렇고, 이 집 크기를 알려하면 어째야 하느냐?”

선효인 보살이 얼얼하게 말했다.

“바깥을 뺀뺀 돌아 봐야죠”

“그래, 그러면 내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야 안에 들어와 잘 살펴 보면 되지 않겠어요?”

“아, 그래? 그러면 됐다”

선효인 보살은 종단 최고 어른의 갑작스런 말씀에 당황해 대답은 했지만 걱정스런 마음에 전전긍긍하기 시작했다. ‘바깥을 살피고, 안을 보려면? 왜 그런 말씀을 내리셨을까...’ 그제 화두가 돼 며칠이 흘렀다. 의문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종조님은 평소 형형한 눈빛으로 질문 세가지만 하시고는 이내 책상에 들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자란 딸(윤혜신, 43)이 말했다.

“총지종의 미래를 위해 가족제도와 함께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도 투자가 있어야 해요”

딸 혜신씨는 잘 다니던 유치원 교사 직을 그만두고 총지종 한마음 유치원으로 옮겨 종단발전엔 헌신했던 어린이 포교 베테랑이기도 하다. 중학생, 고등학생 두 아들을 둔 혜신씨는 그만 좀 잘박하다. 두 아들을 서원당에 앉혀 놓는 데까지는 하는데 막상 아이들만 덩그러니 앉아 불공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안타깝다고.

혜신씨는 아이들의 근기에 맞는 포교 프로그램과 어린이 청소년 학교, 수련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불공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은 어머니를 보며 자랐어요. 어린 마음에도 어머니처럼 신앙을 한다면 적어도 그 큰 삶을 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어머니께 말씀 드리고 같이 불공을 하기 시작했죠”

혜신씨는 그렇게 어머니를 본받아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진언행자가 될 수 있었지만 자신이 두 아들에게 그런 모범을 보이진 못한다



고 그걸 종단이 나서서 해주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진언행자 가족을 찾습니다

총지종 진언행자로 모범적인 수행을 하고 있는 진언행자 가족을 총지종보사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2)552-1080



둘째 외손자 성원(14)이와 함께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 종조법설집 명상용 CD, 테잎 출시



종조탄신 100주년 창종 35주년 기념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이 나왔습니다.
 출시된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은 편안한 배경음악에 전문성우의 음성을 더함해 누구나 듣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책으로 된 종조법설을 귀로 들을 수 있게 한 것은 원정 종조의 사상과 유훈을 이땅에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큰 의미가 있는 불사 일 것입니다.
 총지종은 이번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 등을 비롯한 오디오 자료들을 활용하여 명상이나 요가수행 등 다양한 수행법을 연구 개발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종조법설집 명상용 CD와 테잎에 대한 자세한 문의로는 서울 통리원 전화 02)552-1080~3 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불 교 총 지 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76-2 / 전화 02)552-1080~3 / 팩스 02)552~1082